JUN 6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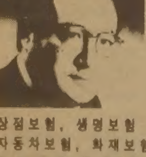
No.1151 1983년 6월6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June 6, 1983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 찬 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R 622 5147

# 신체기능 회복 불가능

## 김영삼씨 곧 단식중단치 않을경우

### 의사경고불구 단식17일째 돌입

(서울3일=AP)김영삼 전 신민당총재는 3일 '곧 단식을 중단치 않으면 건강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식 17일째에 들어갔다.

김씨의 측근은 의사들이 두시간동안 김씨에 단식을 중단토록 설득했으나 김씨는 "내 뜻에 의해 단식을 시작했으니 중단결정도 내가 내리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김씨가 단식을 곧 중단치 않을 경우 신체기능을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3일 입원중인 서울대학병원에서 성명을 발표, "한국의 완전 민주회복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대통령선출은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철 전 통일사회당총재는 3일 단식 4일째의 함석헌옹씨등 5명의 인사와 합류,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 격렬한 반정부데모

### 연대생 1,000여명

(서울3일=AP)연세대학교 학생 1천여명은 3일 교내에서 격렬한 반정부데모를 벌였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날 정오 조금지나 한 학생이 횃불과 나이프를 들고 학교건물 2층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자"고 외친후 경찰이 이 학생을 끌고가는 틈을 타 학생 3백여명이 데모를 벌였다.

이어 다른 한 학생이 중앙도서관 5층에서 밧줄을 이용, 휜천에 붉은 글씨로 현 정권을 비난하는 극렬한 구호를 써 놓은 현수막을 내려놓자 밑에 있던 수백명의 학생들이 "김영삼씨를 구명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데모를 벌였다.

김씨의 단식투쟁소식은 국내신문에는 보도되지 않고 있으나, 그의 단식으로 인한 한국의 정치적 동요상태를 학생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법이민자 사면않겠다"

## 이민장관발표 "모종조치발표예정"

(오타와)불법이민문제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전면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로이드•액쉬디이민장관이 2일 밝혔다.

액쉬디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번 사면조치가 취해지면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사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 불법이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영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작년12월 연방정부의 이민문제 자문위원회는 불법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위해 국경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미 캐나다에 숨어사는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전면 사면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었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2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이민성이 임명한 불법이민문제 특별보좌관 W.G•로빈슨씨는 6월말경 이민문제자문위의 전면사면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액쉬디장관은 이 보고가 있은후에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면이외의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73년 불법이민 전면사면을 실시, 60일동안 자수 기간을 주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 추방조치를 취했다.

당시 추산된 불법이민자의 수는 5만내지 20만명이었으나, 실제 자수한 사람은 5만명정도였다.

당시 5천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사면조치가 합정일 것으로 생각, 자수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사람들은 주장했다.

83년도에 전면사면을 실시토록 권고한 특별자문위는 이번에는 3년간의 자수기간을 둘 것을 권고했다.

# 단식중단 권고

## 전신민당원 39명, 金泳三씨 찾아 요청

### 범국민 연합세력구축 선언

《서울-UPI》 전신민당원 39명은 1일 서울대하병원으로 김영삼(55)전 총재를 찾아가 『민주화를 위한 더큰 투쟁을 이끌어가기 위해 건강을 생각,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했으나 단식중단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않았다고 한측근이 말했다.

39명의 전신민당원들은 또한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김영삼씨가 요구한 5개 민주화항목을 전폭 지지하며 한국의 민주화투쟁을 위해 모든 양심인과 함께 범국민적인 연합세력을 구축할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31일 동조단식에 들어간 함석헌(82)옹등 5명은 단식2일째를 맞고 있으며, 5명의 인사들은 당초 서울중심가의 교회협의회(NCC) 건물에 모여 단식을 시작했으나 전투경찰대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 각자의 자택까지 호송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의 단식투쟁자중 한명인 이문영(56)전고대법대교수는 전화를 통해 『동료들이 모두 단식중인것을 확인했다』며 『3명의 사복경찰로부터 감시를 받고있어 밖에 나갈수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영삼씨는 이같은 측근들의 간청을 받아들이지않고 민주화를 위한 단식3주째에 들어갔다.

## 장소 변경

### 협동조합 발기총회

오는 9일로 예정된 실업인협회 임시총회및 협동조합 발기총회 장소가 토론토•힐튼•하버•캣슬호텔의 1층 프론테낙•볼•룸•콘벤션•센터(영스트릿과 프론트스트릿)로 바뀌었다.

실협의 창립이래 과제였던 협동조합발기를 위한 이번 총회를 위해 실협이 광고한 애초의 장소는 할리데이•인이였다.

임시총회 시작은 9일(목) 하오6시, 협동조합 발기인 총회는 7시부터이다.

## — 사 고 —

### 취재사진을 원하십니까?

본사가 취재차 촬영한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무료로 드릴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사는 6월1일부로 아래와 같이 실비수수료를 책정했아오니 참고하셔서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시면 성의껏 사진을 제작, 우송하겠읍니다. 본사에 오셔서 필름을 보시고 신문에 게재되지 않은 장면의 사진을 요청하실 수도 있읍니다.

크기 :

인화지 8" × 10" 1매당 $3.00

5" × 7" 1매당 $2.00

송료 : $1.00(매수불문)

연락처 : 김영철기자.

전화 : 533-2361

★본사촬영 필름은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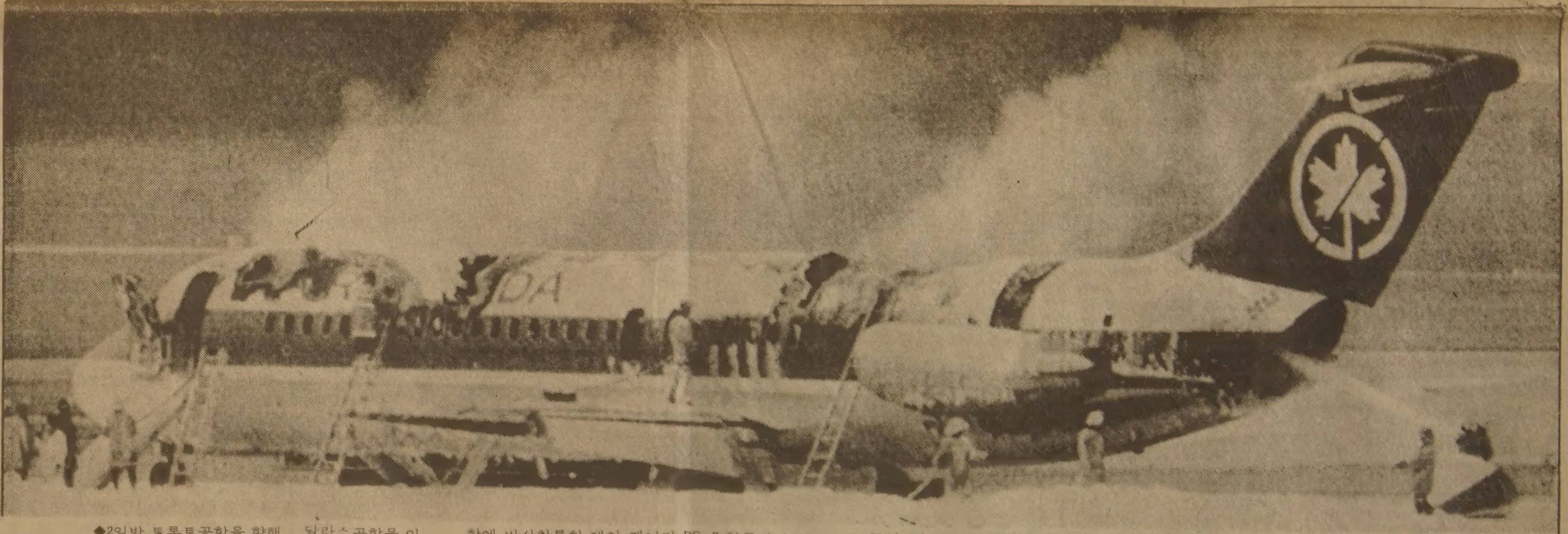
★본사촬영필름을 가져가셨으나 아직 반환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름들은 이민사자료실에 영구보존됩니다.

### 정보안내란 증설

본사는 교민봉사와 원활한 각종 정부교환을 돕기위해 "무엇을 찾으십니까?"란을 마련, 6일자(월)판 부터 안내란을 1면증설키로 했읍니다.

각종기관, 단체, 업소등을 일목요연하게 싣어 일일이 찾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편리와 능률을 도모하게 되었읍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2일밤 토론토공항을 향해 달라스공항을 이륙한 즉시 비행기 뒷쪽에서 불이나 신시내티공항에 비상착륙한 에어•캐나다 DC-9 항공기가 화염에 싸여있다.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에 따르면,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부상했다.

관계기사 2면

금년 하기휴가때 고국 방문을 계획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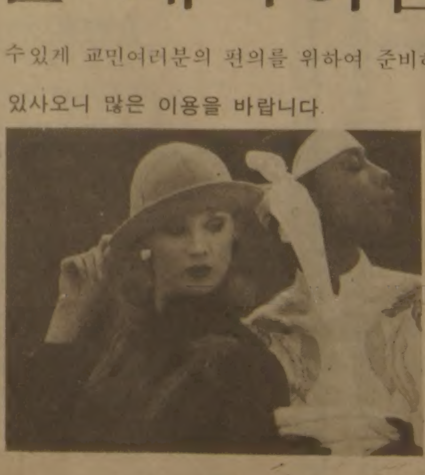
특별할인판매

★부모, 형제, 친지들께 선물용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한곳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있게 교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준비하였읍니다.

⊙미도파에서는 고국방문시 쇼핑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테이스터 • 쵸이스커피
SPE. 5.49
REG. 7.49

폴라벨 프랑스산
SPE. 29.00
REG. 59.00



고급화장품
향수
선그라스
면도기
헤어 드라이어
핸드백. 여행가방
브라우스. 원피스
(이태리산 실크)
※한약종류와 각종비타민등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 비행기승객 23명 사망

## 에어·캐나다소속 DC-9여객기 화재참사

2일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포트·워드(Dallas Fort Worth)국제공항을 떠나 토론토로 향하던 에어·캐나다(Air Canada)소속 DC-9 797항공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일어나 신시내티 그레이터 공항에 비상 착륙했으나, 착륙즉시 화재가 크게 번져 승객 23명이 소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날오후 8시5분 토론토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이 여객기에는 사고당시 41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다. 승객 18명과 승무원 5명은 무사히 구출되어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에어·캐나다 존·워델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비행기조종사가 이륙한지 얼마되지 않은 7시6분경 인디애나폴리스(Indiana Polis)관제탑을 통해 비행기 후방에 원인모를 화재발생을 보고한 후, 7시18분 신시내티공항에 착륙토록 지시 받았다고 말했다.

797기는 발화발견당시 31,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으며, 승무원과 지상관제소 노력으로 공중참사는 면했으나, 착륙시 이미 기체의 천장과 유리창에는 화염이 쌓여 있었다고 목격자들이 말했다.

이 화재는 긴급출동한 소방대원의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항공연료와 산소등으로 인해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아 30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3일 새벽현재 밝혀진 사망자 명단에는 19명의 캐나다인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자의 유해인출작업은 동체가 약간 식고 수습된 밤10시30분경에 시작되었고, 공항당국은 임시 사체안치소를 마련 안치했으나, 대부분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불탔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병원으로 후송된 생환자들도 대부분 심한연기로 인한 호흡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부상을 입어 응급가료를 받고 있다.

공항 관제탑요원은 동기 조종사가 매우 침착히 비상조치를 했으며, 비상착륙은 순조롭고 평상시 같이 이뤄졌다고 말하고, 참화가 난 것을 아쉬워 했다.

에어·캐나다 당국은 조사단을 급파, 미연방항공협회(FAA)의 조사단과 합동으로 원인 조사에 나섰다.

생환자인 23세의 칼리혹스(23세·쾌백거주)군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기내에서는 불길(Flame)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승무원이 후방화장실의 문을 열때 심한연기가 들어왔으며, 인터폰을 통해 조종사가 산소마스크(Oxygen Mask)를 사용하지 말것과, 산소가 화재를 유발한다는 설명과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스튜디어스들은 침착히 승객을 앞으로 옮겨 앉도록 인도했으며, 가능하면 손쉬운 물건을 찾아 코와 입을 막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에어·캐나다의 항공사고는 다음과 같다.

▲1963년 11월29일 DC-8 항공기가 쾌백에서 추락, 118명이 사망.

▲1970년 7월5일 역시 DC-8이 토론토에 추락, 109명이 사망.

▲작년 6월2일 DC-9 항공기가 쾌백도발공항에서 전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미국에서 있었던 DC 항공기의 사고로는 1979년 5월25일 시카고 오헤어공항에서 DC-10기가 이륙즉시 추락, 272명이 사망했다.

DC-9 항공기는 1965년 이래 맥도날·더글라스 항공사에서 제작 취항해 왔는데, 2일 사고난 비행기는 1968년이후 취항해 온 102석 일반승객석만 가진 여객기이다.

현재 에어·캐나다는 37대의 DC기종을 보유, 운행하고 있다.

◆2일 본사를 내방한 현대그룹 간부진:(좌로부터)김덕연차장, 박선학사장, 이해창부장.

# "포니시판 2~3개월 늦어진다"

## 캐나다현대자동차 박성학사장 밝혀

당초 7월부터 판매할 계획이였던 한국산「포니」승용차의 시판이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사를 내방한 박성학 캐나다 현대자동차의 신임사장은 "딜러들이 애프터서비스 공장과 부품저장시설을 만들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9월중순부터 시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사장은 금년 3월중순 본국을 방문,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신항수씨의 후임으로 지난달초에 부임했다.

금년 41세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65년도에 졸업한 박사장은 본사에서 수출담당이사를 역임했다.

박사장은 캐나다내 딜러의 수를 금년도에는 50개로 선정했으며, 내년도에는 100개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딜러신청자수가 한국인 2명을 포함, 2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니」가 그동안 몬트리얼, 뱅쿠버, 토론토, 칼가리, 위니펙, 에드먼턴, 쾌백등 8개지역의 오토쇼에서 좋은 평을 받았으며, 지난겨울의 겨울날씨 견디기 윈터·테스트(Winter Test)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캐나다현대자동차는 지난달 박사장과 함께 부임한 이해창부장등 8명의 서울본사 파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박사장은 오는9월 시판이 시작되며, 2명의 부사장을 현지 케네디언중에서 채용할 방침이며, 케네디언 스탭을 20내지 25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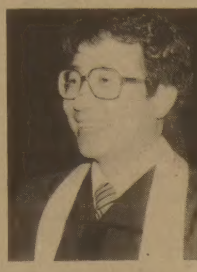
3가지 모델로 판매될 「포니」는 가격이 모델에 따라 5,800달러에서 7,400달러가 될 것으로 회사측은 전했다. 년간 10만대의 포니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는 2-3년내에 30만대로 생산시설을 확충한 후, 미국시장에도 침투할 계획이다.

포니자동차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중남아등 55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 김훈씨 목사안수

## 7월중순 담임목사 취임

토론토대학의 연합교파 소속 신학교인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목회학 신학석사과정을 마친 김훈(34)씨가 1일 목사안수를 받았다.



◆김훈목사

김목사는 7월중순 알버타주 자스퍼의 자스퍼 유나이티드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경기고, 서울농대및 동대학원을 마친 김씨는 74년 캐나다로 이민온 뒤,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다.

# 교민 칼에찔려 중태

## 한국말을쓰는 4명의 젊은이와 시비끝에

교민 이판(40)씨가 2일 새벽2시30분경 605 하이트·프레이스(White Place) 부근에서 한국인으로 추측되는 4명의 젊은이들과 시비끝에 칼로 가슴을 찔려 중태에 빠졌다.

토론토시내 모병원에 입원중인 이씨는 이날 저녁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귀가중에 사고를 당했으며, 강도의 소행인것 같지는 않았다고 2일 이씨의 부인이 밝혔다.

이씨의 부인은 2일 '확실한 것은 경찰의 수사결과 밝혀지겠지만, 시비가 붙은 일당은 동양계인 것은 확실하며,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쓰는것을 볼 때 한국인 같다"고 밝혔다.

메트로경찰의 번햄순경은 2일현재 용의자의 신분은 파악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아직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사고지점에서 멀지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씨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는 이씨는 9년전 이민, 1남1녀의 아버지이다.

# 태권도보급 박차

## 도장본관 증축한 박종수씨

한국고유의 호신술인 태권도를 캐나다에 보급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박종수씨가 다운타운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 본관을 최근 증축한 것을 계기로 태권도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캐나다 전역에 7개 태권도 지관을 가지고 있는 박씨는 782 영스트릿에 위치한 도장본관을 13만달러를 들여 최신식 시설로 개수, 지난달 28일 확장자축연을 배풀었다.

캐나다 유력인사를 포함, 150명여명이 참석한 이날 자축연에는 김용순 무용단의 한국고전무용과 태권도 시범등이 있었다.

본관 500여명과 7개 지관에 4,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박씨는 앞으로 태권도 보급을 위해 토론토시청앞에서 시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케네디안 아내와 이혼한 박씨는 이날 자축연에서 약혼자인 모니카·김씨를 소개하고 올 가을 결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종수 태권도장 본관 증축식에서 테입을 끊는 교민인사들. 왼쪽부터 구상회씨, 윤여화씨, 김무호씨, 석광옥스님 및 박종수사범.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 본사직원 결혼

### 홍석철군·김성숙양

본 토론토·한국일보사의 공무국에 근무하는 홍석철(25)군과 식자부의 김성숙(23)양이 오는 11일(토) 하오1시 시민교회(662 Pape Ave, Tor)에서 조성판목사의 주례로 화촉을 밝힌다.

본사직원으로 있으면서 결혼에까지 골인한 커플은 81년 결혼한 김영철 편집국기자 부부를 시초로 82년의 유승민 세방여행사 부부(전 편집국 부장)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 3주째 계속 오름세

## 캐나다중앙은행 이자율

한동안 내림세를 보이던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자율이 3주째 오름세를 보였다.

2일 캐나다중앙은행의 이자율은 한 주전의 9.50%보다 약간 오른 9.53%로, 지난 3월초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캐나다 이자율의 전망은 미국금융시장의 전망에 크게 의존한다.

미 금융시장 월·스트릿 금리예상 전문가인 헨리·카프맨씨는 "하락세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보유 달러가 기대이상의 빠른 속도로 소비되는데 대해 금융당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 전세버스 이용키로

### 씨알한국인학교

씨알한국인학교(교장 유회자)는 1일밤 가진 이사회(이사장 장기철)의 결의에 따라 스쿨버스를 통학버스 운영회사인 차터웨이회사 버스를 이용키로 결정했다.

차테웨이버스는 금년 여름학기때부터 운영된다.

이날밤 이사회는 또 내년의 학교설립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현재13명인 이사진을 25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47>

누가 惡魔인가 ⑧

마인 무전연락을 받고 出入口 주시

그런데 그들이 암시하고 있는 통화는 모두가 중국말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녹음된 통화를 중국어를 해독하는 사람에게 맡겨 통역을 부탁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밝혀졌다.

①2월10일 밤12시에 모종의 사건이 터질 예정이다.

②장소는 H호텔 나이트클럽.

③「제5의 사나이」라는 말이자주 등장하고 있다. 암호인것 같은데 그들은 이 암호의 주인공을 만날 예정인 것 같다.

④「물건」이란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그들은 그 물건을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이상을 종합·검토한 끝에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문제의 화교들은 2월10일 밤12시에 H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제5의 사나이를 만나 물건을 인수할 예정인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경찰은 아연 긴장했다.

경찰은 특공대 30명을 나이트클럽에 투입시키고 호텔 주위를 2중3중으로 포위하기로 결정했다.

마인은 그 특공대에 가담했다.

「제5의 사나이」가 누구냐는데 대해 경찰은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X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마인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 물건은 물어 볼 것도 없이 헤로인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왜 하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는가 하는 점이었다. 더구나 화교들은「제5의 사나이」를 만남에 있어서 대단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전투에 임하는 것 처럼.

마침내 2월10일 저녁때가 되었다. 6시가 되자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수사요원들은 호텔주위에 포진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포위망을 구축했다.

7시가 가까와오자 꽉대기에 자리잡은 나이트클럽에 손님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어느때 보다도 손님들이 붐어나는 속도가 빨랐다. 특공대 30명은 삼삼오오 짝을지어 자리를잡았다. 마인은 9시에 클럽에 들어갔다.

朴 男 그림

수사요원들과 뒤섞여 중국인 들도 클럽안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떼 지어 몰려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10시가 지나자 클럽안은 완전히 만원이 되었다.

실내는 탁한 담배연기와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밴드는 계속 디스코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악기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짙은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 복장도 검정 양복으로 통일 돼 있었고 나비넥타이를 달고 있었다.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악단이었다.

자정이 가까와 오자 실내는 더할수 없이 질탕한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손님들이 느끼는 분위기 였고 문제의 중국인들이나 수사요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12시 5분전. 한 떼의 사람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섰다. 5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였다. 그들은 여자를 에워싸듯이 하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원이라는 여자가 남자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간다. 모두 경계하라!』

무전 연락을 받은 마인은 출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 목사안수축하및 취임예배

본교회 이광준선교사님께서 지난 5월13일 한국순복음 세계선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셨으므로 순복음캐나다지방회장 이필주목사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목사안수축하및 취임예배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일시** : 1983년6월12일(주일) 오후4시

**장소** : 순복음윈저교회
187 PATRICIA RD.
WINDSOR, ONT.

**전화** : (519)254-7923, 253-1077

순복음윈져교회

교우일동

Joiner of Amigos for Joy of Arts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순간들을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으시렵니까…?

저희 JOA Studio는 Wedding Photo, Video Specialists로 여러분의 Wedding이나 각종행사 등을 오래오래 생생한 추억으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사진이나 Video Tape에 담아 드립니다.

Best Quality Best Service
Satisfaction Guaranteed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샘플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이나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조영훈 299-4223 정재호 499-3893 윤성선 424-2082

「PHOTOGRAPH」
-Top Quality Studio Camera
-Special Effect Included
-Studio Portrait
-Video Analysis
-Variable Options

「*VIDEO」
-Many years of experience
-Best Camera & VCR used
-Auto music dubbing
-Both Format(VHS, Beta)
-Edited Tape

40 GODSTONE RD, #1204
WILLOWDALE 499-3893

JOA Studio

## 이대환 不動産

★드라이브 인
▲도넛숍 : 주매상 $8,500, 렌트 $2,900, 아스킹 $320,000
▲도넛숍 : 주매상 $9,500, 렌트 $3,500, 아스킹 $319.000
★Mall안에 있는 Fast Food
주매상 $10,000, 아스킹 $320,000
★아담한 Take Out 식당(6일)
주매상 $6,500 렌트 $500
아스킹 $160,0
★Mall안에 있는 Gift숍(크리스탈전문)
년수입 $500,000, 아스킹 $14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1,000, 리스 5+5년가능,
아스킹 $13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5,000, 리스 6+10
아스킹 $220,000
▲Plaza, Income $32만 Net, Net, Asking $3백만, D.P. $50만, (대지 5,3 에이커)
▲Plaza(시외), Income $28만9천 Net, Net, Asking $2백50만, D.P. $40만, 투자액에 대한 14% 수입보장.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 〃敗殘兵들끼리 만났군요〃

## 金鍾泌씨 다시 野人으로 보스턴에

### 케임브릿지 거닐며 19년전을 회상
### 「政治」입다물고 특유의 조크 여전
### 석정선씨와 山에올라 意味담긴 詩한수읊고…

김종필씨가 또다시 야인의 몸으로 보스턴에 들렀다.

그의 보스턴방문은 이번이 두번째.

지난64년 공화당 창당파동으로 모든 공직을 내놓은후 「자의반 타의반」의 외유길에 하바드대에서 잠시 머문뒤 19년만에 보스턴을 다시 찾았다.

『정치이야기는 접어둡시다.』

JP라는 애칭이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했던 그는 5·16에서 10·26에 이르기까지의 18년동안 항상 여당권내 「태풍의 눈」으로 갖가지 풍운을 일으키고 겪었으며, 이제 회갑을 눈앞에 둔 57세의 나이로 또다시 야인이 되어 외유길에 오른 것이다.

『64년 이곳에 잠시 있을때 생각이 자꾸 나는군요. 그때만해도 젊었던 것 같아요. 보스턴심포니의 Tangle Wood 야외음악회에 찾아가 밤이 깊은줄 모르고 감상하기도 했고…』

그의 상표라고 할수 있는 햇볕에 그을은 듯한, 약간 검은 얼굴에 허스키보이스, 그리고 항상 여운을 남기는 특유의 조크도 여전했다.

『전에 보스턴에 있을때 하워드 존슨에 자주 들러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한끼를 때우곤 했는데 그때 그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 일부러 찰스강가에 지금도 그대로있는 그 하워드존슨을 찾아가 똑같은 스테이크를 시켜 먹어보았다 한다. 그리고 그는 옛날에 걸어다니던 케임브릿지의 거리도 다시 거닐어 보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야인의 처지이지만 64년에 케임브릿지 거리를 거닐때의 그의 심정과 지금의 감회가 어떻게 다른가는 본인의 가슴속에서만 비교될수 있었을 듯.

「아무런, 특별한 목적없이」 하바드대 국제문제연구소가 초청한 비공식오찬에 참석하는 길에 옛친구도 만나고 바람도 쏘일겸 보스턴에 들렀다는 그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을 콩코드의 조용한 모텔에 묵으면서 White Mountain으로, Cape Cod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화구와 휴대용 붓만갖고 보스턴을 찾았다.

그러나 아직은 그림을 그릴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갖지 못했는지 White Mountain이나 Cape Cod의 절경을 대하고도 화구는 끝내 풀지 않았다.

단지 그의 육사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인 석정선씨와 단둘이 White Mountain정상에 올라갔을때 휴대용 붓을 꺼내들고 『신록은 새로운데 옛정은 더욱 따뜻하고…』라는 의미가 담긴 한시를 한수 읊었다.

그는 보스턴에 있을때도 가까왔던 친구들외에는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그러나 자신이 창당했고 몸담았던 공화당의 같은 당원이었던 전국회의원 오유방씨를 만나자 『여! 패잔병들끼리 만났군요.』하면서 그를 반겼다.

60년대와 70년대 한국정치의 큰 변수로서 누구보다도 부침이 심했던 JP는 이제 자신을 「패잔병」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러한 패잔병의 심정에서인지 이번에 보스턴에 들렀을때는 장래나 현재의 이야기에는 입을 다문채 「지나간 일들」만 이야기했다.

『항간에서는 JP의 이번 방미에 어떤 사명이 있다는 추측이 있는데…』

『…』

그는 역시 정치이야기에는 입을 다물었다.

예술을 좋아하고, 때로는 감상적이며 정에 약한듯 하면서도 항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는 JP. 이것이 그의 인간적인 매력일수는 있으나 정치인 JP에게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보스턴〉

## 제다이 觀客흥행기록적

조지·루카스감독의 「스타워즈」 제3편인 「제다이 돌아오다」(Return of the Jedi)가 첫상영 6일동안 8백34개극장에서 4천1백만달러이상의 흥행수입을 올려 1주일 최고매표기록을 수립했다고 루카스영화제작회사가 31일 발표했다.

루카스필름의 시드니·가니스부사장에 따르면 「제다이」는 미국및 캐나다등에서 첫상영에 들어간 이래 1일까지 1주일동안 최소한 4천3백만달러의 흥행수입을 올리게 될것 같다.

그런데 「제다이」는 지난주 상영첫날 6백20만달러의 매표기록을 세웠으며 이어 흥행수입은 메모리얼데이주말동안 갑자기 상승, 28일 8백10만달러, 29일 8백4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는것.

## ◁금주의 행사▷

—1983년6월6일(월)~12일(일)—

◆6월7일(화) 하오7시30분
김동길교수 강연회 「한국역사의 반성」
곳 : 한인연합교회(30 Bloor St. W. Tor)
연락처 925-6261

◆9일(목) 하오6시 실협임시총회
곳 : 하버·캐슬 호텔 1층 Frontenac Ball Room 컨벤션센터
※협동조합 발기총회는 하오7시

◆6월10일(금) 하오7시 고교동창배구대회 주장회의
곳 : 코리아하우스
연락처 : 298-8573(신동호)

◆10일(금) 양지식품 개업리셉션
곳 : 1738 Lawrence Ave. E.
연락처 : 759-9331

◆11일(토) 낮12시 한맘골프대회
곳 : 글렌·이글 골프클럽
연락처 : 751-9236, 282-5387

◆11일(토) 상오10시 이인주신부 서품식
곳 : St.Michael 주교좌 대성당
연락처 : 863-0415

◆11일(토) 하오4시 한인Y 영어연구반
강사 : Suan Lesjek양
곳 : West End YMCA(931 College St. Tor)
연락처 : 536-1166 Mr. 김

◆11일(토) 상오9시30분 토론토시 공개경매
곳 : 메트로·토론토 도로교통서비스 (64 Murray Rd. Keel & Dufferin)
품목 : 타자기·케비넷·계산기·자전거등
문의처 : 947-7326(빌·케네디)

##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 I'D LIKE A REFUND

새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 다시 물리게 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적절한 표현으로는 I'd like a refund. 가 있다. 물론, 「돈으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다.

상점마다 policy(방침)가 다 다르겠으나, 웬만한 이름 있는 곳에서는 손님이 원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돈으로 되돌려 주기 마련이다. 물건을 물리는 경우는 receipt(영수증)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 가서 위에 나온 I'd like a refund. 라고 하면 될 것이고, 돈으로 물르는 이유를 대는 경우에는 「불량품이다」 This is defective. 혹은 「싸이즈가 틀리다」 It's the wrong size. 「색깔이 다르다」 The color is different. 등을 말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미 산 물건을 다른 것과 교환하고 싶은 경우는 exchange A for B의 용법을 사용하여, 예컨대 toaster를 샀는데 blender와 교환하고 싶을 때는 I'd like to exchange this toaster for that blender.(이 토우스터를 저 믹서와 교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된다.

이 때, 「물건을 교환하다」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 change를 쓰지 않고 exchange를 사용하는 데 유의하여야 할것이다.

A: Excuse me, Ma'am.
B: Yes, can I help you?
A: Yes, I bought this toaster here yesterday, but it doesn't work.
B: Do you have a receipt?
A: Yes, I do. I'd like a refund.
B: All right. I'll see what I can do.

A:실례합니다.
B:네, 도와 드릴까요?
A:네, 어제 여기서 토우스터를 샀는데 고장이군요.
B:영수증을 갖고 계셔요?
A:네, 있읍니다. 돈으로 반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B:좋습니다. 어떻게 해 보도록 하죠.

*receipt:영수증.
*refund:반환.
*defective:결함이 있는.
*blender:토마도 따위의 과일즙을 만들때 사용되는 흔히 우리가 「믹서」라고 알고 있는 기구이며 실제 mixer(믹서)란 달걀이나 「아이스 크림」등을 거품낼때 사용하는 단순한 저으게.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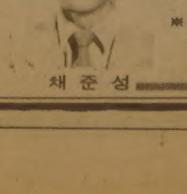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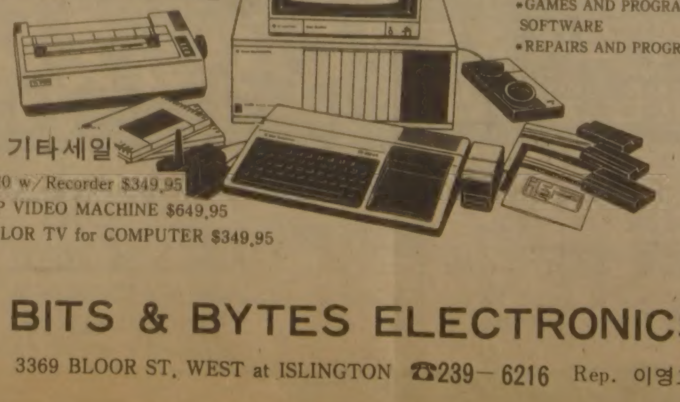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개업특별세일
TI 홈콤퓨터 $299.00
WITH FREE TAPE RECORDER (판매가 $99.95)AND PROGRAM TAPE(판매가 $44.95)
또한 6개의 GAME SOFTWARE를 사시는 분은 $149.95 상당의 Speech Synthesizer를 무료로 드립니다.


6월중 기타세일
◉VIC-20 w/Recorder $349.95
◉SHARP VIDEO MACHINE $649.95
◉14"COLOR TV for COMPUTER $349.95
-취급품목-
*TEXAS INSTRUMENTS TI-99/4A HOME COMPUTER
*VIC-20, COMMODORE64
*APPLE COMPATABLE MICRO COMPUTERS
*VIDEO TAPE RECORDERS AND MOVIES
*GAMES AND PROGRAM SOFTWARE
*REPAIRS AND PROGRAMMING SERVICE
BITS & BYTES ELECTRONICS
3369 BLOOR ST. WEST at ISLINGTON ☎239-6216 Rep. 이영호. 안경용

NEW WHITE ROSE PAINTING

아파트먼트 페인트전문
1 BED ROOM $185.00
2 BED ROOM $225.00
3 BED ROOM $265.00
새봄맞이 단장을 원하십니까?
집페인트—스페샬가격
☎431-2019

# 차이나타운이 곳곳에 생기고있다

## 브로드뷰·스트릿과 제랄드·스트릿지역등

주말에 스파다이나와 던다스 부근에 나가본 사람들은 한국에서 겪던 교통번잡이 캐나다에까지 상륙했음을 느끼게 된다.

이곳이 바로 차이나타운으로 중국인 음식점, 잡화상등이 몰린 이 지역에는 중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토론토 시민이 값싸고 맛있는 음식, 값싸고도 귀한 동양의 수입품, 옷감, 한약, 야채, 고기, 생선등을 사기 위해 몰려든다.

10년전 형성되기 시작한 차이나타운은 너무 몰리는 쇼핑객 때문에 교통혼잡과 파킹장빈곤등의 장애를 받고 있고 또한 렌트가 올라 물건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매력을 점차 잃고 있다. 이에 등장한 것이 제2, 제3의 차이나타운.

제2의 차이나타운은 브로드뷰와 제라드·스트릿지역을 말하고, 제3의 차이나타운은 미들랜드와 쉐퍼드쪽을 말한다.

제2, 제3의 차이나타운이 등장하게된 이면에는 최근 수년간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계 이민자 상인들이 부쩍 증가된 때문이다.

보다 덜 붐비는 제2의 차이나타운으로 몰리는 인구가 매주 증가하고 있다.

제라드·스트릿·이스트에서 레스토랑용품을 팔고 있는 샘·능씨는 제2의 차이나타운을 찾는 쇼핑객의 절반이 다운타운까지 나가기 싫어하는 중국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야채상을 경영하는 빌·조우씨는 야채가 싱싱하고 값도 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도 말했다.

차이나타운 형성으로 이미 브로드뷰 선상의 주택들도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 많은 집들이 수리·단장을 하고있으며, 독채집(Detached House)의 가격은 약15만달러, 약간 북쪽인 리버데일지역은 15년전 캐비지타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제3차이나타운의 미드랜드, 쉐퍼드 지역은 현재 레스토랑 밀집등 서서히 타운형성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제2의 차이나타운으로 등장한 제라드·스트릿과 브로드뷰·에비뉴의 한 중국인 식품점. 야채가 싱싱하고 값이 싸다. 이 지역은 10년 캐비지타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 단장,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 입학생 전면평점제 실시해야

### 토론토대 특별위주장

토론토대학의 특별위원회(Task Force)는 앞으로 UT가 온타리오 각급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에 대한 평점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다니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토론토대학이 온타리오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안목에서는 형편 없다고 밝히고, 현재 전반적인 고교학생의 수준이 낮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급학교 교장재량에 따라 내려지는 평점의 기준이 가지각색이라 이에 대한 신입도도 힘든 형편이므로 앞으로 입학생에 대해 사전시험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T의 자연과학기술분야는 이미 5년전 부터 온타리오주 고등학교에 대한 평점을 시도하고 있다.

대학당국자의 일부는 현재 전과정에 대해 이를 적용해야 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김보경박사의 논문

# 「인종차별과 이민생활」을 읽고

박찬도

5월16일자 및 5월18일자 토론토 한국일보에 기재된 김보경박사의 「인종차별과 이민생활」은 교민사회에 매우 유익한 글이었다고 생각한다.

원래 차별이란, 욕심사납고 교만하여 남을 깔보고 내려누르는 언동을 취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남에게 해를 주고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일이다. 그리고 차별 아닌 것을 차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가까운 이에게 너무 다정하고 먼 사람은 너무 박정히 하는 버릇에서 오는 배타적 편견현상이다.

과한 친근 소원(疏遠)의 심리가 상대를 사실 이상의 악으로 보게 되어, 공연히 차별하는 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배타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차별을 하는 결과행위를 낳음을 말한다.

필자의 말대로 옛날에 통상하러 온 서양사람을 도깨비처럼 보아 상대도 않고 내쫓아 버린 것이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서양사람도 비슷하게 느꼈을 것이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차 그렇게 편견 가짐으로써 차별을 하고 하니 당함을 느끼게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피차 자기가 차별한 것은 생각지 못하고 차별당한 것으로만 느끼고 상대에게 차별했다고 욕을 할 것이다.

그렇게 그릇된 차별의식으로서 불미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로 안다. 이같이 자기 편견이 상대를 차별자로 오해하게 되면서 자기가 차별하는 일이 생기느니만큼 그러한 편견이 안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인종적 편견에 대해 모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1) 불완전한 정보에 기준을 둔 타인종에 대한 태도

(2) 그러한 편견의 고수

(3) 타인종을 자기 인종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경향.

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으로 정의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와 같은 친근·소원의 감정도 알고보면 교만하고 욕심사나운데서 생기는 것이니 우리가 욕심을 줄이고 더욱 겸손해 짐으로써 차별 아닌 것을 차별로 느끼는 친근·소원의 감정도 줄고, 진짜 차별인 과욕과 교만(또는 이의 반응인 증오적 분노) 자체도 소멸되리라고 본다.

편견이 본능적 반응이기 보다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배운바 크다고 하였는데 역시 (1) (2) (3)의 소리를 자기가 속한 사회(나라)에서 지니게 된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 농도와 심도는 역시 개인들의 자질인 비과욕, 겸손, 관대한 이해등에 달렸을 것으로 안다.

이는 본능 그자체의 개선이든 본능의 환경적 영향에 따른 개선현상이든 그 기호는 본능적 자용효과로 보아진다. 고로 "사회에서 배운 바"라면서 사회에 탓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인종차별의 해결책으로서 (1) 다수 민족과의 빈번한 접촉, (2) 백인사회에 적극 참여, (3) 소수집단의 . 금지확립을 들었는데 역시 맞는 이야기로 본다.

이것이 맞는 해결책이긴 하나 되는 해결책이 아닌 것같다. 환자를 급한대로 임상요법을 써서 될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마음」문제에 관련된 한 잘 안되며, 잘못하다가는 역효과를 낸다. 중병환자모양 근본적 치료방법을 써야만 되는 것이다. 필자도 언급한 바대로 「상호불쾌감을 갖게 된다면 상호감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역효과가 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술한 바와 같이 인격이 발전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마음자체가 욕심이 줄고 겸손해져서 인종차별의 요인이 스스로 없어져야 하고, 그럼으로써 차별아닌 것을 차별로 아는 「편견」이 줄어들어야 할 줄로 안다.

자기자신의 편견적 차별의식으로 말미암아, 차별 않는 상대를 차별이라고 느끼어 배타하는 자세가 바로 차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알며,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많이 차별하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으로 안다. 그러한 식의 차별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면 언젠가 크게 당할 때가 올 것이 우려된다.

끝으로 할 말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내가 당하니 나쁘다는 옹졸한 생각보다는 인종차별이라는 문제 자체가 인간세(人間世)에서 탐탁하지 못한 일이니 내가 이세상에서 그따위 시시한 인종차별 따위의 문제는 없어지게끔 줄여보자는 대국적 견해를 가질만큼 너그러워져야 하겠다. 그렇게 너그러워짐이 바로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연재소설〉

# 혼돈 ㊱

글 이대준 그림 최미성

### 제2편 착수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무슨 수가 생기냐? 먹고 살려면 지렁이라도 잡으러 가야지."

"만불 뭉치를 굴리던 놈들이 어떻게 지렁이를 잡냐?"

"그럼,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니? 설마 은행을 털자는 말은 않겠지."

"은행은 못 털어도 가게는 털 수 있지 않아?"

"가게를?"

태영이 말끝을 올리며 덕기를 바라보았다.

"사실 집은 말이야, 공탕을 칠 확률이 많지만 가게는 집보다 털기가 어렵고 더 위험해도 공탕은 안친다고. 돈이 없으면 담배라도 들고 나올 수가 있지 않아? 신문사에서 아무리 나팔을 불어보라고 그래라. 담배까지 숨겨두는가? 그리고 가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인 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훔치기는 해도 한국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는다고. 안그래?"

풀이 죽어있던 사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침울하던 분위기가 활기를 되찾아갔다.

"그래! 그거 참 기똥찬 생각이다."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길거리에 쌔고 널린 게 가겐데 말이야."

덕기의 말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은 사내들이 여기저기서 무겁게 다물고있던 입을 열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왜? 내 생각으로는 더 쉬울 것같은데. 들어가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 문을 열 때까지는 사람이 올 염려는 없으니까 마음 놓고 뒤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생각에 잠겨있던 영수가 신중하게 말을 꺼내자 만영이 이의를 제기했다.

"물론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벅차. 대부분의 가게는 자체 경보장치를 가지고 있는데다 순경들의 정기적인 순찰까지 있어서 함부로 덤비는 것은 감방 속으로 뛰어드는 거와 같애."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덕기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영수를 쳐다보았다.

영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가게를 털기 시작하면 「암흑단」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와 그의 친구들은 영원히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부모와 사회에 대한 한때의 반항으로 집을 뛰쳐나오고, 집을 털어 불만을 해소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새삶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아직 한창 나이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도 아닌데, 꼭 어두운 길로만 가야할 필요가 있는가? 부모의 타락을 보고 뛰쳐나온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어두운 생활로 일생을 망쳐야만 앙갚음이 되는가?)

영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들을 납득시켜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불행한 친구들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무럭무럭 피어 올랐다.

"가게를 터는 것은 좀 더 연구와 검토를 한 후에 착수하기로 하고, 그동안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우선 우리집을 털기로 하자. 우리집에서는 내가 하루 매상을 들고 나온 것 뿐이니까 돈도 가장 적게 나왔고, 내가 나온지가 오래되어서 성공할 가능성도 많으니까 말이야."

영수는 자기네 집을 털어 얼마라도 돈이 나오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며 설득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자기의 체면도 설 거라는 생각을 하며 말문을 열었다.

"신중해서 손해날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수한이 호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며 찬성의 뜻을 비쳤다.

"또 공탕이면 어떻게 하니? 당장 생활비가 달랑달랑하는데…"

"영수 아버지는 소문난 부자니까 공탕은 안칠 거야."

"그건 걱정 안해도 돼. 하다못하면 골프채라도 들고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친구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 하는 장담이었지만 영수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계속〉

영수는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기집을 또 털자고 제안하고…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균형을 잃는 순간—토론토의 공중곡예사 제이·코크레인군이 미시시피강을 가로질러 지상 63m위에 설치된 쇠줄을 건너던중 쇠줄이 크게 흔들리자 균형을 잃어 봉을 놓치고 쇠줄에 매달리는 순간. 〈뉴올리안스—AP〉

# 특별금리의달

자산 $5,000,000 달성을 눈앞에 둔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 은 보다 높은 금리로 보답하고저

"특별금리의 달" 을 설정하였읍니다.

바닥이 드러나가는 일반금리의 움직임은

금리가 오를 때 같이 오르며 매월 이자를 받는 월복리의 오뚜기 정기예금!!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교민이면 누구나가 받을수 있는 이 높은 이익을 받아가십시오.

오뚜기 정기예금!!

| 이율 | 예금종별 | 기간별 | 한인신용조합 | 참고 일반은행 | 기간 |
|---|---|---|---|---|---|
| | 일반정기예금 | 30~90일 | 7.75% | 7.00% | 6월10일부터 |
| | | 120일 | 8.00% | 7.25 | 7월19일까지 |
| | | 180일 | 8.25% | 7.50 | 40일간 |
| | | 365일 | 8.75% | 8.00 | |
| | 오뚜기 정기예금 | 6개월 이상 | 8.75% | — | |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TORONTO

PHONE; 533-9387/9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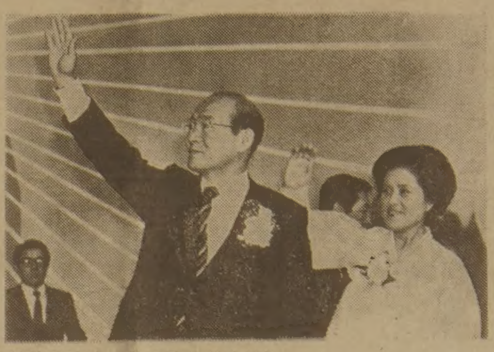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 "改憲說 無根"

## "單任정신 現憲法 수호

## IPU에 北韓대표오면 환대"

### 全대통령, 平統자문회의 개회사서 밝혀



◇全대통령내외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개회식에 참석, 자문위원들의 박수에 손들어 답하고있다.

全斗煥대통령은 1일 北韓공산집단은 우리사회 내부에 혼란을조성해 안정을 흔드는데 혈안이 되고있다고지적, 『그들이 최근 그들의 對南黑色선전기구인 이른바 統革黨방송을 통해 우리정부가 改憲을 추진하고있다는 악의에찬 허위선전을 하고있는것은 그러한 企圖의 한例이며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모략을하건 또 어떤형태의 도발을해오든 우리국민은 조금도 흔들림없이 안정의기틀을 소중하게 가꾸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이 改憲문제에 관해 이같이 밝힌것은 최근 항간에나돌고있는 改憲說이 사실이아님을 분명히한 것이다.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의장인 全대통령은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이날상오 서울蠶室 체육관에서열린 제2차平統정책 자문회의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제5공화국의 헌법은 평화적政權교체에 대한 온국민의 여망을모아 탄생된새시대의 章典이며, 이헌법은 과거 우리의 국민적底力을 분산시켰던 長期執權시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위해 대통령單任制를 규정하는등 조항 조항마다 國力신장과 국민화합을 위한정신이 깃들어있다』고 강조, 현행 헌법守護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全대통령은 국제의회연맹(IPU)서울총회와 관련,『우리 정부는 만약 北韓대표들이 IPU총회 참석을위해 서울을 방문한다면 그들을 같은 형제로서 따뜻이 환영할것이며 그들이 서울에 와서 北韓으로 돌아갈때까지 일체의 편의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평화통일의 聖業을 이룩하기위해서는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제일 큰 과제임을 깊이 인식해 만일 이같은 안정을 해치는 불안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있더라도 단호히 척결돼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이 국민화합을 해치거나 국가발전에 有害한 일들을 앞장서 삼제하고 안정의 지속적인 확보에 적극 기여할때 국가발전의 토대는 한층 굳건하게 다져질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南北韓이 진실로 민족을 위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면 서로 대화와 교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것』이라고 지적,『이자리에서 다시한번 北韓측에대해 통일의 主體인 온겨레앞에문호를 개방하고 하루속히南北대화의 광장에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南北韓대화 거듭促求

### 平統자문會議 전체회의 5개項 결의문 채택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는 1일상오10시 서울蠶室실내체육관에서 1만여국내외자문위원과 三府요인, 정당대표, 주요사회단체대표등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전체회의를 열고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조국의 통일과 南北韓간의 현안문제는 南北韓 당사자간의 대화를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고 『全斗煥대통령이 천명한 민주통일방안이 우리민족의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합리적인 방안임을 확신하며 이를 실현키위한 우리정부의 과감하고 폭넓은 통일대화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한다』는등 5개항의 決議文을 채택했다.

자문위원들은 이결의문에서『우리는 北韓측이 南北韓간의 대화를 거부하는그릇된 자세를 버리고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 회담과 南北韓당국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에 호응, 하루속히 대화의 광장에 나올것과 北韓측이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권익과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동을 즉각중지하고 민족화합의 정신에 따라 민족공동의 이익과발전을 추구하는 올바른 자세를가질것』을촉구했다.

孫在植 통일원장관은 이날『통일정책추진에 관한 보고』에서『앞으로 정부는 국민적 합의기반과 국제사회의 성원을 토대로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국면을 넓혀가는한편北韓측이 하루속히 민족의장래문제와 현실문제를 협의해결키위한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도록 부단히 촉구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5월중 輸出실적 19億5천만 달러

지난5월중 수출실적은 19억5천4백만달러로 지난해5월에 비해 3.3%가 늘어났고 올들어 5월 현재 총수출실적은 86억1천2백만달러로 작년같은기간보다 1.0%가 늘어났다.

5월중 신용장내도액은 14억8천1백만달러로 작년보다 6.4%가 늘어나 월별로는 올들어 가장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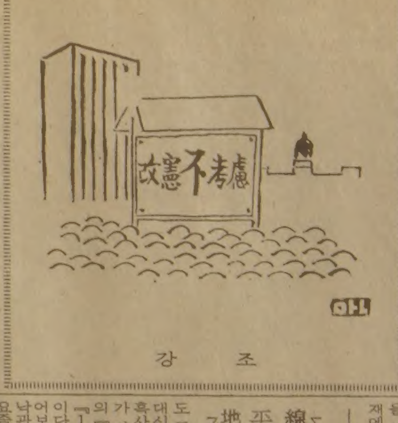
5월말현재 총 신용장내도액은 72억9천만달러로 작년동기에 비해 6.0%가 증가됐다.

### 平統 海外자문위원 6백33명에 리셉션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의장인 全斗煥대통령은 1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청와대 綠地園에서 崔桂月씨(64·한국南方개발대표)등平統해외 자문위원6백33명을위해 리셉션을 베풀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에 앞서 서울城北협의회등 17개 모범협의회와 金仁子씨(女·61·西江大교수)등 有功자문위원 88명을 표창한뒤다과를 베풀고 환담했다.

##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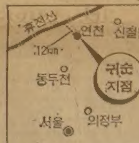



강 조

## 北韓주민 1명歸順

### 伐木노동자 정봉호씨 어제 西部전선 넘어

◇귀순한 정봉호씨




북한주민 1명이 1일 새벽 西部전선 휴전선을넘어 귀순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귀순자는 북한강원도철원군동면정동리 신탄사업소 소속 벌목노동자인 정봉호씨(44)로 정씨는 이날 상오5시35분께 짙은 안개가 덮인 漣川서북방 12㎞지점 휴전선을넘어 월남해왔다는것.

군당국은 정씨의 귀순동기를 조사중이다.

정씨는 전 북괴군 대위 이웅평, 신중철 용사에 이은 올들어 3번째 월남귀순자다.

### 單任정신 높이評價 民韓성명

民韓黨의 睦堯相대변인은 1일 성명을 발표,『全斗煥대통령이 單任정신을 준수하여 1人長期執權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주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 與野領袖회담 개최 柳총재에 建議키로 民韓총무단등

民韓黨은 1일상오 총무단과 내무·문공위소속의원 연석회의를열고 학원문제등 당면문제에대해 논의,『與野領袖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데 의견

### 電話線복구 百50명 파견

#### 韓·레바논覺書서명

한국과 레바논은 31일하오 베이루트市와 주변지역에 4만회선의 電話線복구사업을위한 諒解覺書에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1일발표했다.

文昌華駐베이루트 대사와 조지스·프렘 레바논 체신장관이 서명한 이양해각서는 오는 10월말까지 우리나라 기술자와 技能工1백50여명을 레바논에 파견하여 戰後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레바논 정부군관할하에있는 베이루트와 주변의 치안상태가 양호한 지역에서 파괴된 전화선의 복원작업을하되 한국측은 기능공들의 賃金만 부담하고 이들의 숙식및 체재비, 機資材등 여타비용은 레바논측이 부담하는것으로 되어있다.

이 전화선복구공사를 맡은 럭키개발과 金星통신등 2개업체는 지난 1월23일 9명의 현지조사단을 파견한후 현재 34명의 기능공들을 보내 부분적인공사를 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

## 社告

### 영광의 大賞

**玉米造씨** (초등부·41세·慶南鶴山 국민교 교감)

**羅叁柱씨** (중등부·60세·全南康津 農高 교장)

◇玉米造교감

◇羅叁柱교장

# 제2회 한국敎育者大賞수상자 選定

本社제정

## 全國서 1백15명 추천… 感淚속에 심사

진정한 스승의 길을 밝히는 師道의 등불은 온갖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읍니다.

오로지 「흙과 분필」속에서 34년을 보내며 12개농업계중·고교에서 영농후계자육성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해온 全南교육계의 巨木 羅叁柱교장(60·전남康津農高), 낙도출신으로 22년동안 벽지 낙도지역의 교육에 몸바쳐오면서 「진범이·섬(長蛇島)의 神話」를 엮어냈던 교육영화 「낙도의 메아리」의 주인공 玉米造교감(41·경남巨濟郡 鶴山국교)이 한국일보사 제정 제2회 한국敎育者大賞의 영광의 大賞수상자로 결정되었읍니다.

「한국敎育者大賞」심사위원회는 또 영예의 「스승의 賞」수상자로 李鍾大선생님(48·충남扶餘女中교사) 張泰範선생님(42·경기始興郡古川국민五金분교주임교사)등 23분의 선생님을 선정했읍니다.

大賞및 스승의賞 수상자들에대한 시상식은 오는 15일 상오11시 서울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지며, 시상식이끝난 뒤 세종홀에서는 한국일보사가주최하는 축하오찬회도 있읍니다.

### 스승의賞

◇초등부

▲韓信卿(61·서울한빛맹학교교장) ▲金洙千(52·부산남부교육청장학사) ▲徐榮一(41·大邱지산국민교교사) ▲趙周鎬(40·仁川敎大附國교사) ▲張泰範(42·경기고천국교 오전분교교사) ▲權熙文(60·강원신철원국민교교장) ▲安東基(44·충남論山장원국민교교감) ▲鄭寅明(55·충북소이국민교교감) ▲金點順(54·전남和順도곡동국민교교장) ▲昔春雄(41·전북활동남국민교교사) ▲李万桀(51·경북계원국민교교감) ▲金龍柱(44·제주맹아학교 교사)

◇중등부

▲韓卿封(52·서울 영등포공고 교사) ▲金許男(63·부산송도상고교장) ▲權五甲(64·대구동림고교장) ▲尹錫齊(64·인천기계공고교장) ▲辛玫瓔(64·경기근명여상교장) ▲崔鳳鉉(64·강원소양중교장) ▲李鍾大(48·충남부여여중교사) ▲趙炳熙(50·충북음성여고교사) ▲任英鎮(44·전북풍남여중교사) ▲趙賢濟(50·경남 단성종합고 교사) ▲白王壽(65·경북금성여고교장)

### 施賞式 15일 상오11시 世宗문화회관 소강당

시상식에서는 「大賞」수상자두분에게 상패및 5백만원씩의 상금과 함께 해외교육계시찰의 부상이, 「스승의 賞」수상자 23분에게는 상패와 1백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한국일보사는 師道를빛낸 영광의 師表들을 찾아내 온 국민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바치는 情表로 삼기위해 지난 82년1월1일자 新年號에 「한국敎育者大賞」의 제정을 社告로발표, 교육계는 물론이고 전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아왔읍니다.

82년6월10일의 제1회 수상자결정및 시상에이은 이번의 제2회 수상후보자추천에는 전국의독자와 교육계가호응, 모두 1백15건이 접수됐으며 교육계원로와교육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鄭元植서울師大교수)가 지난2개월동안 엄격한 심사를 해왔읍니다.

심사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 감동의 눈물을 수없이 흘렸으며 이처럼 훌륭한 스승들이 있는한 한국교육의 앞날은 밝다』고 심사소감을 말했읍니다.

「한국敎育者大賞」의 운영에 독자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바라겠읍니다.

★「大賞」「스승의상」수상자 얼굴·심사경위및 소감5·6面

主催 한국일보社
後援 文敎部·大韓敎育聯合會·大韓敎員共濟會

### 地平線

인류의 앞날이 장미빛이냐 깜깜하냐를 말할때 유토피어와함께 디스토피어라는 말을 쓴다. 架空의 理想鄕, 즉 현실적으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않는 유토피어대신 부정적인 현대의 암흑사회를 그리는 문학사조가 바로 그것이다. 헉슬리의『멋진 신세계』, 오웰의『1984년』이 대표작이다. ▼인류의 미래를 점쳐보는 未來學에 있어서도 낙관과 비관이 섞여있고, 요즘에 와선 보다 균형이 잡힌 成熟社會에 초점이 모아지고있는것같다. 로마·클럽의 멤버이고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영국의 D.가볼교수는 「未來를 發明한다」는 저서에이어「成熟社會」를 저술했다. 그 비전을 둘러싸고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지구는 지금과 같은 인구증가, 경제성장을 계속할수는 없고, 안정균형의 상태로 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안정균형사회를 정체와 억압이 지배하는 대신, 자유와 문화적 성숙의 사회로 만들려면, 인간은 양적인 확대보다 생활의질, 다시 말하면 정신적 가치문화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로마·클럽에선 이성숙사회 이론이외에도 「限界없는 학습」, 「成長의 限界」, 「浪費의 時代를 넘어서」, 「地球社會에의길」등이 잇달아 보고되었는데, 모두가 21세기의 세계를 이모저모로 분석, 예견하는 리포트들이다. ▼엊그제 외신보도를보면 2천년대의세계는 너무 어둡게만 볼것은 아니라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있다. 허만·칸박사와 줄리언·L·시몬교수는 지구가 인구·식량·질병·자원·공해및 생태적환경문제·전쟁등에 그리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예견한다. 기아·질병·전쟁과 공해의위협이 있기는하나 보다나은세계를 그들은 내다본다. 3년전에 세상을 침울하게한 카터의 2천년대 전망보고서와는 뉘앙스가 많이달라져 있는것을 알수있다. ▼전세계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나라에도 2천년대를 향한 종합적인 연구보고서쯤 발표될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또 우리사회도 성숙해지고 있는데 성숙사회의 여러면을 분석·예견해 보는 정책의 先見이 아쉬운것이다.


김정진 개인전
·6월13일~24일·
Reception 6월15일(수) 7~10PM
Gallery Hours 월~금: 12~6 P.M 토: 1~6P.M 일: 1~7P.M
Columbus Centre
901 Lawrence Ave., West(at Dufferin)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 R

장소변경

실업인협회 임시총회 및 협동조합 (가칭)발기총회 소집공고

일 시: 1983년 6월9일 오후6시(발기총회는 7시)
장 소: Frontenac Ball Room (1층)
Convention Centre / Toronto Hilton Harbour Castle
ㅁ사정에 의해서 장소를 변경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기인:
강경하 강기원 강대영 강문원 강수호 강춘남 강창흠 고정배 구철회 권광수 김강선 김경애 김관영 김광철 김구명 김근철 김남원
김덕용 김명정 김병선 김봉근 김상달 김삼철 김석철 김선영 김소일 김신철 김연오 김영곤 김영권 김영대 김영무 김영진
김영환 김용규 김용기 김용준 김은하 김응하 김재온 김정식 김정치 김종열 김종철 김철수 김충헌 김태진 김풍수 김현덕 김현승
김형호 김희삼 나상선 만양정 문욱섭 박광철 박경덕 박경택 박규동 박기창 박남회 박영우 박찬도 박천봉 박태조
박희영 방익서 배기욱 배기웅 백경락 백용빈 변경용 변일용 변의섭 서광철 서동춘 서동헌 서민석 서정길 서준경
성상근 소수자 손병헌 송기선 송완일 송영집 송재규 송종남 신장휴 신화성 심태섭 안규정 안기정 안 덕 양혜봉
엄기섭 엄동환 여문석 우인도 우희두 원일재 원종필 유만춘 유석주 유승현 유영갑(R) 유영갑(Y) 유인석 유종철 윤재용
이건영 이경선 이국영 이기대 이기섭 이기혼 이동환 이민식 이범재 이병권 이상봉 이상철 이성우 이성호 이승수
이승우 이양주 이영민 이용규 이 윤 이인용 이장세 이정구 이재영 이종원 이주태 이주태 이준경 이진효 이춘수
이학현 이한근 이형택 이홍규 이 휘 임승철 임의상 임철원 장가진 장순채 장재식 장재춘 장정애 장추국 장홍원
전기석 전석규 전윤식 정상우 정승은 정원영 정인필 정태호 정희철 조기연 조남용 공재용 권순근 김가별 김기봉
김영호 김종조 김학성 김현수 나영삼 남상현 마보훈 명노길 문영환 민병국 박두하 박상남 박영구 박영자 분가이
서상수 서춘원 손영곤 손용성 송남성 원재훈 원종선 유기훈 윤길웅 이광노 이근호 이밀복 이순복 이영민(T). 임영하
장영대 장인수 장혁진 정동회 정익영 최용근 함태민 고천석 남동회 양길웅 진경호 조영덕 조용규 조한권 추창균
진현철 차선겸 차선철 차선행 천성열 천용기 최기주 최남축 최대덕 최동주 최무원 최복기 최봉식 최상수 최상철
최영길 최영식 최우현 최원보 최장복 최종국 최종원 최태식 최호영 한광명 한용식 한천석 한행일 함금상 함덕상
함의현 함태산 함효상 허재영 허종수 허충식 현영일 홍건선 홍사렴 홍창성 홍한기 황규택 황인주 황재길
손세주 장석진 이희용 김형찬 진현철 유용근 장광복 이형인 정원규 최인열 박기봉 김정곤 민명식 박기호 이신년

# 다시 다진 평화적 政權교체

## 平統회의서 밝힌 全대통령의 意志

全斗煥대통령이 1일 제2차平統정책자문회의개회사를통해 밝힌 주요내용은 대통령單任制정신을 담은 현행 헌법守護를위한 강한 의지、국제의회연맹(IPU)서울총회에의 北韓대표초청、정치와 사회의 안정역설등으로 간추려 질수 있다。

全대통령이 특히 改憲문제에관해 언급한것은 최근 밑도끝도없이 항간에 나돌고있는 改憲說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점을 분명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全대통령은 改憲說과 관련、北傀가 이른바 統革黨방송을통해 惡意에찬 허위선전을 하고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이 이에현혹되지말것을 강력히 당부、改憲說의 虛構性과 날조성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全대통령은 평화적政權교체와 대통령의 單任制정신을 담은 현행헌법守護에 대한 굳은의지를 거듭 강조、자신의일관된 單任철학을 밝히고있다。

改憲說과 관련해 정부측은 지난4월 임시국회에서 金相浹국무총리의 답변을 통해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과정에서 訛傳된 것같다는「無根」을 분명히 했지만 그뒤에도 市井에는 改憲說이 심심찮게 나돌았던게 사실이다。그 내용은 間選制로 돼있는 현행헌법을 直選制로 바꾸고 全대통령이 다시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전혀근거없는 것이었다。심지어는 88년의 서울올림픽과관련해 악의에찬 改憲說이 유포되기까지 했었다。

全대통령이 公私席에서 자신의 헌법守護의지、單任정신을 일관되게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근거 없는 改憲說이 나돈 것은 우리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려는 底意가 깔려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던게 사실이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全대통령은 지난번訪韓했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사마란치 위원장을 만난자리에서도 자신의 單任정신을 분명히 했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88년 올림픽이 열릴때는 나의 임기가 끝난뒤이다。그러나 나는 올림픽준비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올림픽을 준비한 대통령으로서 다음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개회식 단상에 앉게되면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全대통령의 單任정신을 분명히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全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改憲說과 관련、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改憲說은 이제 鎭火될 것으로 보인다。

제5공화국이 지향하고 있는 큰줄기는 평화적政權교체와 정의사회 구현으로 볼수 있다。이런점에서 國政최고책임자인 全대통령이 改憲說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流言이 나돈다면 제5공화국정부의 안정을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底意라고 밖에는 볼수 없다는것이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全대통령이 이번 개회사를 통해 北韓대표들을 IPU서울총회에 초청한것은 어떻게 해서든 北韓사회를 개방하고 교류와 대화를 통해 통일여건을 조성해보겠다는 일관된 통일철학을 담고 있는것으로 평가된다。

### 北側의 IPU방해工作에 쐐기

### “사회不安 어떤犧牲치뤄도 척결”

北傀는 그동안 IPU서울총회방해를 위해 모든공작을 해왔고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방해공작을펼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PU 서울총회는 85년의 국제통화기금(IMF)총회、86년의 아시안게임、88년의 올림픽과함께 국제사회에서 南北韓의 地位를 판가름내는 分岐點 이라는 점에서 北傀는 IPU 서울총회 방해를위해 모든술책을 동원할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全대통령의 北韓대표초청은 통일여건 조성의지와 함께 IPU총회에 대한 그들의 방해공작에 쐐기를 박는 효과도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北韓대표의 IPU총회 초청과 함께 全대통령은 정치 및 사회의안정、국민화합을 어느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이와 관련해全대통령은『안정을 해치는 불안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단호히 척결돼야 할것』이라고 결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같은 자세는 안정이 이룩돼야 경제가 성장하고、경제가 성장돼야 안보와국방이 이뤄져 우리의 생존을 지켜 나갈수 있다는 자신의 일관된 國政운영철학을 강도높게 밝힌것이다。

全대통령의 이번 平統자문회의 개회사는 단순한개회사의 성격을 넘어 최근의 국내외정세에대한 국가원수로서의 철학을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것으로봐야할것이다。

【尹國炳기자】

◇1일상오 蠶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차 平統정책자문회의。1만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장은 「통일의지」로 가득찼다。

## 全대통령 開會辭(要旨)

北韓공산집단은 입으로는 민족과 통일을 말하고 있으나 행동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은 평화통일을 말하면서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또 통일을 위한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反평화 反통일의 모순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北韓공산집단은 민족의 단결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공공연하게 민족成員간의 갈등을 추구하여 分裂路線을 달려가고있다。

우리 민족은 하루 빨리 서로 담을 헐고 和合과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여 開放의 역사적大勢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오는 10월 서울서열리는 국제의회연맹총회에 北韓의 대표들도 많이 참석하여 우리민족의 화합된모습을 온세계에 보여 준다면 겨레의염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도 매우 귀중한계기가 될것이다。

우리 정부는 만일 北韓대표들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같은 형제로서 따뜻이 환영할것이며 그들이 돌아갈때까지 一切의 편의를제공할것이다。

우리가 6천만동포의 통일조국이란 지상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굳건한안정의 바탕위에서 의지와底力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는데 北韓공산집단은 우리의 안정을 흔드는데 血眼이 되어 우리사회내부에극도의 혼란을 조성할것을기도하고 있다。

그들이 최근 그들의 對南黑色선전기구인 이른바 統革黨방송을 통하여 우리 정부가 改憲을 추진하고있다는 惡意에찬 허위선전을 하고 있는것은 그러한 기도의 한例라고 하겠다。물론 그들의 얕은술책에 현혹될 우리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것이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온국민의 여망을모아 탄생된 새시대의 章典이다。

이헌법은 과거 우리의국민적 底力을 分散시켰던 장기집권 是非를 源泉的으로 방지하기위하여 대통령單任制를 규정하는등 조항마다 國力신장과 국민화합을 위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것이 우리 政治史에 건강하게 뿌리를내릴때 우리 國力이 더욱 더 튼튼해질것이란점을 北韓공산주의자들은 분명 두려워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모략을 하건 또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해오든 우리국민은 조금도 흔들림없이 안정의 기틀을 소중하게 가꾸어나가야 하겠다。

한나라의 발전은 어느정치지도자 한사람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단합된 힘에의해서 더욱 튼튼하게 비약적으로 이뤄진다。

우리가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헤치고 國力을 신장시켜 기어이 평화통일의 聖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제일 큰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만일 이같은 안정을 해치는 不安요인이 있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단호히 剔抉돼야 할 것이다。

## 메아리

## 未來眼

2천년대가 달려 오고있다。눈앞에 다칠 가까운 내일을 맞이하는 지구의 眺望은 진하지는 못해도 장미색이다。지금보다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美과학발전협회서의「전망」은 듣기에 좋고 마음이 느긋해 진다。

과학은 예상을 뒤엎는다。일반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고 믿지않을 일들을 척척 해낸다。전등시대가 열리기 직전、영국에서「빛의 소동」이 벌어졌다。

발명왕으로 이미 이름난 에디슨이 백열등을 연구한다고 발표하자 그 불티가 바다건너로 날아갔다。밤의 광명을 팔던 가스등회사의 유가증권값이 벼락치듯 떨어졌다。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권위 있다는 증인들은「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겐 훌륭한 것이 겠지만、실용적이며 과학적인 사람들에겐 가치 없는것」이라고、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증언했다。

이래서 가스등회사들의 겁에 질린 동요는 사그러 들었으나 에디슨은「밤의 태양」같은 환한 전등을 끝내 만들어 냈다。등잔 밑이 어두운 당시의 未來眼이 금방 웃음거리가 된셈이다。1세기전인 1878년의 일이었다。

지난 한 세기동안 과학은 음속처럼 빠른 변화를 인류에게 안겨 주었다。20세기 후반에 들면서 가속이붙어 변화의 템포는 초음속으로 탈바꿈했다。

1957년 소련이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려、세계는 깜짝 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잠자던 거인 미국도 무슨 소리냐고 펄쩍 솟아 올랐다。지상의 냉전시대가 우주 열전시대로 바뀌었다。

이 시기를 깃점으로 그때 미국의미사일 계획을 맡았던 웨르너·폰·브라운은 1백년 뒤인 2057년의 우주시대를 일찍 날카롭게 꿰뚫어보았다。과학자의 未來眼은 時差를 줄여 가며 예언의 적중률을 높였다。

그가 내다 본 2천년대는 벌써 우리앞에 닥아있다。그 전망을 다시 요약해 보자。

―2057년 무렵엔 달 표면을 각국 과학자들이 분할、연구와 탐험이 진행된다。경치가 빼어난 곳에 호텔이 늘어선 관광지대가 출현할것이다。달세계로가는 정기적인 우주항공로도 개설된다。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빙글 빙글 돈다。그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일 위성은 통신위성。어떤 나라나 도시의 상공에 이르렀을 때 무전으로 통신을 받아 행선지에다다라 지상에 되돌려 보낸다。

―텔리비전 중계소의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도 나온다。이것에 의해 전세계를 연결하는 텔리비전망이 실현될 것이다。그러나 어떤 강대국이라도 우주를 단독으로 지배하겠다는 꿈은 버려야 한다。2057년 우주의 주인은 여전히 태양일것이다。

과학자의 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수천개의 인공위성이 우주가 좁다고 날아다닌다。하늘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졌고 쓰레기 수거 위성이라도 띄워야할 지경에 왔다。별똥처럼 지구에 쏟아지는 파편은 헤아리기 어렵다。

강대국만이 아니다。우리도 우주시대에 발을 들여 놓았다。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전용통신위성을 띄울까 말까하는 고민에 젖어있다。이 망설임은 오는9월까지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부닥친 벽은 역시 돈이다。1천8백억원을 쏟아 넣어야한다。혹자는 올림픽의 의지를 떠올리면 더 숨가빠진다。이 돈의 무게는 우리가 금년에 첨단기술 개발과 확보에 쓰여질 예산과 비교하면 실감이 난다。

정부가 2백4억、민간에서 2백39억원을 부담하게 짜여졌다。이투자를 합해도 통신위성 1개를 발사할 비용의 4분의1 정도다。미래의 설계는 이만큼 벅차다。

미래의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그 문을 여는 열쇠값은 엄청나다。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주를 향한 관심을 더 높이고 未來眼을 한층 크게 뜰 때다。비록 거북이 걸음일지라도 우주시대를 날활주로를 착실히 닦아 가야 우리 미래는 한결 밝아 진다。

劉榮鍾【編輯委員】

## 日、「세계戰略」적극參與

### 나까소네 “「軍事」아닌「정치」面서”

【東京=聯合】나까소네 일본수상은 31일 일본은 앞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세계전략에 적극참여할것이라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윌리엄즈버그7대 西方선진공업국경제정상회담이 끝난후 일본기자단과가진 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의의및 성과등을 설명하는가운데『중거리핵미사일감축협상을 둘러싼 對蘇강경자세를 분명히밝힌 윌리엄즈버그 정치성명은 서방정상간의 합의사항이기때문에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것이며 일본은 이를 실행해야만할것』이라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윌리엄즈버그정치성명과 관련、『일본은 집단자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과 非核3원칙을가진 독자적 입장에서 세계정치에 참여하고 있어 군사적인 세계전략참여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참여는 가능하다』고 전제하고『그러나 東西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정치성명에 참여했다고해서 앞으로 일본이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의 지휘아래 들어가 이의 구속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고많았소” 레이건 美대통령은 31일윌리엄즈버그에서 西方經濟頂上會談에 참석하고 귀국인사차 예방한 나까소네日本수상을 전송하고있다。【윌리엄즈버그31日AP電送=聯合】

## 美 F15機부품생산 참여한 日MCL社

### 東獨회사와도 技術제휴… 美서 큰우려

【東京=聯合】미국과 일본의 관리들은 31일 미제최신예F15전투기조립부품의 생산에 참여하고있는 일본의 MCL회사가 東獨의국영수출입회사인 SKET와 기술제휴관계를 맺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항공자위대에 제공되는 F15機의 정밀금속주조작업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MCL社는 지난81년 같은 금속주조회사인 東獨국영스케트수출입회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최신주조기술을 제공받기로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같은사실은 지난달30일 MCL社관계자들이 동회사공장을 방문한 기자들에게 말함으로써 밝혀졌다。

## 여객기납치한 犯人 피곤해잠자다 被逮

여객기 1대를 납치하는데는 어렵사리 성공했으나 그만 잠이들어버려 납치극에 실패한 멍청한납치범이있어화제、사우디아라비아에서뉴욕으로 비행하던 정보제트기를 식탁용나이프로위협、납치한 한 아랍人납치범이 긴비행에 지친나머지 잠이 든든바람에 그만 관계당국에 체포됐다。

美시카고의 로욜라대학에서 강의도 맡은바 있는 이라크출신의 알리씨(39)는 그의 13살난 딸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여행하는도중 식사에사용하던 나이프로위협하며 기수를 레바논으로 돌릴것을 요구했다는 것。【AP】

## 海外토픽

### 해일로 소잃은농부 상심끝에 목매자살

지난26일 일본동북부 아끼따(秋田)현을 강타한 소지진과 해일로 기르던 소를 잃었던 일본의 한 농부가 31일 이를 상심한 나머지、죽은 소를따라 그만 목매 자살했다。

고야마·가즈오(33)라는 이 농부는 10년전 1천5백엔(약 4천7백만원)의 빚을 얻어 畜舍를 짓고 26마리의 소를 길러왔으나 지난번지진으로 축사가 파괴되고 13마리의 소를 잃게 돼자목을맸다는것。【聯合】

### 엘女王에 侍醫22명 침술사1명도 포함

영국의 엘리자베드여왕은 침술사1명을포함한 전문의22명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선데이·미러誌가 보도。

여왕의 시의중 몇명을 만나본 오든리·화이팅기자는 침술사이자 동종요법사가 아일랜드인 찰즈·케네디·엘리어트박사라고 밝혔다고。

화이팅기자는 여왕 부모와 할머니가 동종요법을대단히 신뢰했다고보도。【AP】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肝癌「킬러」 직경약10cm크기의 원형癌치료기구。인퓨사이드로 불리는 이 소형기구는 肝癌환자의 가슴속에 이식돼 癌종양에 직접 강력한 약품치료를 담당함으로써 간암환자의 수명을 2배로 연장시킬수가 있다。【보스턴31日AP電送=聯合】

## 記者의 눈

### 判決餘波

교통사고를 낸후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사가 피해자가 죽자 다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일사부재리 원칙위배 시비가 나오게된 사건이다。

그러나 금고6월을 확정시킨 대법원판결을 놓고 막상 대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있어 어리둥절 해진다。

대법원은 피고인(운전사)이 2심에서 선고받은 금고6월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므로 그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끝에『양형부당은 적당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입장이고 이에반해 검찰은『대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수있는데도 깨지않은 것으로보아 검찰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인것』으로 판단하고있는것이다。

대법원이 피고인의상고를 기각했기때문에결과적으로는 검찰의 견해를 받아들인것처럼 되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위배여부」를 대법원이판단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대법원판결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는게사실。

현사소송법제3백84조는「대법원은 상고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문제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운 양형부당만이 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조항에는「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등의 위반이 있을때는 상고이유에 포함되지않은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수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이번사건에서도 상고이유에는 엉뚱하게 원심판결에 일사부재리원칙이란 헌법상규정의 위반이 있었는지 따져볼수있는것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문에는「일사부재리원칙위배여부」에 대해서는 설시(說示)하지않아 이부분은 판단을 하지않은것처럼 된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법원판결을 나름대로해석、이판결이 있은직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만일 대법원이 이번에 양형부당만을 판단한것이라면 다시 동일한 사안이 상고될경우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올 여지도 없지않을것 같다。

이래저래 전체적인 법체계를 고려하지않고 그때그때 양산해낸 법률이 얽히고설킨 뒤끝을 보는 것같아 입맛이 쓰다。

【崔奎植사회부기자】


새한칼라 확장이전

인사말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는 6월1일부터 아래주소로 이전확장하여 교민여러분께 봉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인덕 올림

이전일 : 6월1일

새주소 644 BLOOR ST. W.

(신용조합 건너편)

전화 535-7772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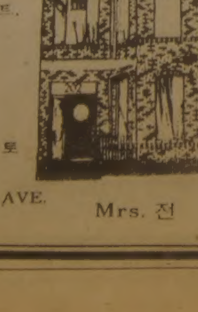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Oriental Recreation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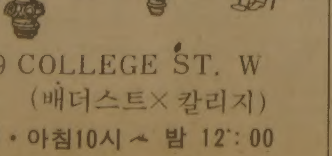
금번 저희는 한국식 당구대(6대 보유), 외국식 당구대및 비데오머신을 보유하고 COLLEGE(조지·브라운 학교옆)에 개업했읍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 용 올림

□한국인의 당구대회예약환영

□특별봉사



549 COLLEGE ST. W

(배더스트× 칼리지)

평 일·아침10시~밤 12:00

토·일·아침10시~새벽 1:00

924-5597

페미리·닥터

개업안내

DR. C. ANEKE M.D.

영업시간·월~토 오전9시~오후7시

301 SILVERSTONE DR. SUITE 205

MARTINGROVE SHOPPING CENTER

(NORTH OF ALBION, REXDALE)

☎ 745-9700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 소나무의 무서운 害虫「솔잎혹파리」

# 비닐療法으로 百%퇴치

## 봄·가을 두차례 나무밑에 깔아

## 成虫·애벌레 한꺼번에 박멸

### 山林廳 68년 첫시도 俗離山등 푸르름되찾아

【俗離山=鄭逸和기자】솔잎혹파리때문에 누렇게 죽어가던 소나무들이「푸르름」을 되찾게 될것같다.

그동안 천적투입,약물수간(樹幹)주사등 갖가지 방법으로 솔잎혹파리와 싸워왔으나 그때마다 관경패를 당했던 산림청이 1백%의 효과가 있는 퇴치방법을 개발했기 때문.

그방법은 소나무밑에 비닐을깔아 혹파리의 유충을 한꺼번에 잡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식은 비닐을 전산림지역에 모두 깔기가 어렵고 빗물이 새어드는것을 방해하는등 문제가있어 당분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시행될 전망이다.

산림청이 첫효과를 본곳은 지난68년 顯忠祠에서였다. 그뒤 산림청은 慶州佛國寺주변과 普門관광단지부근의 소나무밭에 본격적으로 비닐을깔아 솔잎혹파리를 제거했으며 지난해에는 국립공원 俗離山에서도 이같은 방법을 택해 송림(松林)이 되살아나고있다.

俗離山 국립공원이 솔잎혹파리에 피해를 보기시작한것은 지난74년께 부터로 7천1백정보에 달하는 공원중 4천정보가 누렇게병들어갔다. 당황한 관할 報恩군청은 천적투입,약물주사등을 통해 방제작업을폈으나 별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비닐을 사용하자 지난해 연말부터 소나무들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올봄부터는 파란색을 완전히 되찾기 시작했다.

솔잎혹파리 피해가 가장 심했던곳은 俗離山국립공원의 중심지역인 報恩郡內 俗離面일대와 俗離山줄기인 清原郡 琅城面일대.

이 일대의 소나무를 되살린 비닐피복법이란 소나무밭에 비닐을깔아 봄과가을 두차례에 걸쳐 혹파리를 잡는 방법.

혹파리는 애벌레 시절인 여름한철 소나무잎을 먹으며 살다가 9월하순쯤에는 겨울을 보내기위해 땅에떨어져내린다. 겨울내내 땅속에있은후 이듬해 4월쯤에 다시 번데기에서 파리로 변해 솔잎으로 날아올라 알을 낳고이알이 또 애벌레가돼솔잎을먹기시작한다.

혹파리번데기가 파리로 변한후 살수있는 기간은 24시간내외. 땅위에 비닐을 덮어두면 따뜻한 햇볕을 받아 혹파리가 된 번데기는 한두쪽 비닐포장밑에서 웽웽 거리다가 그냥 죽고만다.

가을에는 애벌레가 겨울을 나기위해 땅에 똑똑떨어지는데 매끄러운 비닐을위에 좁쌀처럼 애벌레들이 모이게된다. 이 모인 애벌레를 한곳에 모아 불에 태워버리거나 병에넣어 땅속에 묻어버리면 되는것이다.

비닐피복법은 비닐을 깔기위해 땅을고르게 해야하며 풀포기, 나무그루터기등이 비닐을 상하지않게해야하는 작업의 까다로움과 많은경비가 필요해 일시에 광범하게 깔지못하는 에로가있으나 감염중심지를 전략지역으로 골라 실시하면 효과는 크게 올릴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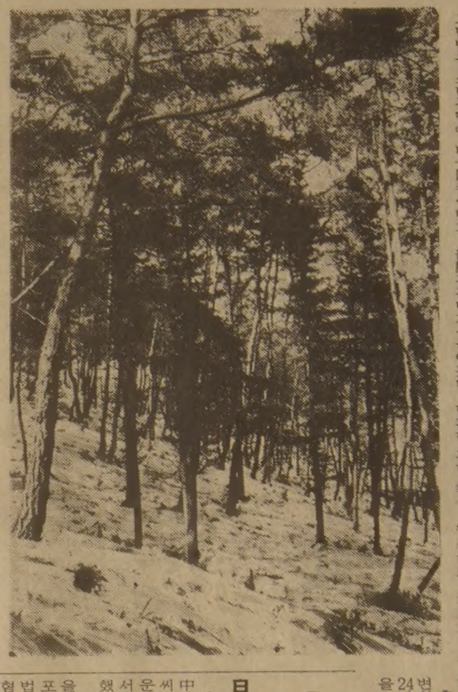
산림청에 따르면 비닐을 깔경우 ha당 비닐값33만6천3백원, 인건비25만원등 모두 59만여원이 필요하다는것. 이에따라 산림청은 모든산에 비닐을 깔수가없다고 판단, 국립공원이나 관광지등 특수지역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나무를 보호할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솔잎혹파리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29년. 木浦지방과 昌慶苑에서 동시에 발견됐고, 오랜 잠적기를 지나 1972년에 전국 40만정보를 침입하게 됐다.

혹파리는 성충이 2㎜밖에 안되는 작은곤충.

무살이 곤충인 혹파리는누잎소나무인 赤松과 海松만 골라 솔잎사이에 알을낳는다. 한마리가 낳은 알은 대략 1백10개정도.

이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소나무잎의 맨아래부분에 붙어 보리알모양의 집을짓고 소나무양분을 빨아먹어 결국 소나무를 고사시키고만다.



◇한겨울의 雪景이 아닙니다. 俗離山일대의 소나무밑에 비닐을깔아 솔잎혹파리를 제거하고있다. 언뜻보기에는 눈이쌓인듯하지만 봄, 가을 두차례에 걸쳐 혹파리를 잡는데 큰효과를 보고있다.【충북清原郡琅城面鰍亭里에서】

# 中共機납치범 6명起訴

### 月末께 첫公判

서울지검 공안부는 1일 中共여객기납치범 卓長仁씨(35)등 6명을 항공기운항안전법등 위반 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24일 이들을 항공기 운항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항공법, 출입국관리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뒤 8일만에 기소한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형사지법은 6월말께 이들에대한첫공판을 열것으로 보이는데 구속피고인에 대한 첫공판은 통상 기소후 20일쯤지나 열린다.

재판과정에서는 납치범들이 혐의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있고 증거가 확보돼있어 범죄사실에대한 다툼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이들의 여객기납치행위가 정치적망명에 목적이 있었던점을 들어 검찰과 맞설것같다. 1심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6개월만에 선고공판이 있으며 대법원까지상고하더라도6~14개월이면최종확정된다.

卓은 또 항공학교를 중퇴, 비행기술을 다소알고있어 납치때 큰도움이 됐다는것.

그런데 卓과高는 애인관계지만 卓은 유부남이고高는 아직미혼으로 알려졌다.

## 여자 납치범이 만두빚어 나눠 먹기도

### 「세계自由人에 보내는글」 탄원서도 써

중공여객기 납치범은 현재 서울城東구치소에 수감돼있는데 이들이 수감된방은 수세식변소가 달려있으며 침대는없으나 장판이깔려있는등 시설이 좋은편으로 알려졌다.

그전에 이들 납치범 6명가운데 남자5명은 한방에, 여자1명은 별도의방에 수감돼있다는것.

또 음식물로 별도대접을 해주는데 여자납치범 高東萍은 지난주 만두를만들어 납치범들이 함께 먹기도했다고한다.

납치범들은 수감당시엔 식사도 하지않고「세계자유인에 보내는글」등 탄원서를 쓰기도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자신들의 납치행위가 정치적 망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 자유중국으로 보내줄것을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납치범 卓長仁은중공에서 공금횡령 혐의를받아 여객기를탈때 자기동생이름으로 탑승허가서를 받아내 이것을 위조,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 물엿工場서 셋 中毒死

### 半月 亞黃酸가스에 질식… 1명 重態

【水原】31일하오 1시30분께 경기華城郡 半月面八谷2里27 풍진화학(대표 민병성) 물엿공장에서 엿고르는 작업을하던 이공장 종업원 김영배씨(38·경기華城郡梅松面 野牧里238)·최용길씨(33·경기華城郡飛鳳面南里152)·최윤영씨(24·華城郡半月面乾乾3里643)등 3명이 침지조(沈漬槽)에서 흘러나온 아황산가스에 질식, 그자리에서 숨지고 송영수씨(47·華城郡飛鳳面三花3里66)는 水原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으나 중태다.

최길용씨와 최윤영씨는 이날 높이10m, 지름5·4m의 원형 침지조안에 들어가 침지된 옥수수가 잘 흘러가도록 설치한 경산판을 뜯는순간 새어나온 아황산가스에 질식돼 숨졌고 이들의 비명을 듣고 구하러 들어갔던 김씨와 송씨도 함께 변을당했다.

한편 華城경찰서는 1일 풍진화학(대표 민병성) 안전관리과장 최상윤씨(41·경기始興郡軍浦邑堂里12의22)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韓】

## 전 順天署長에 징역7년 宣告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安又萬부장판사)는 1일 전順天경찰서장崔容銖피고인(54·구속당시 전남도경 보안과장)등 7명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崔피고인에게 징역7년 추징금3천만원을, 구속당시 順天경찰서장이었던 陳鎔範피고인(55)에게는 징역3년 추징금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順天경찰서 경무과장 朴燦九 피고인(47)에게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백만원을, 경리계장 柳喻奎피고인(47)에게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백80만원을각각 선고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준 順天 공신상호신용금고 대표 任炳樑피고인(42)등 3명에게는 벌금7백50만원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 高麗大生 5명令狀

### 교내示威 선동혐의

서울 城北경찰서는 1일 高大생 朴鍾信군(21·독문과4년), 李皓楨군(21·교육학과3년), 李炯淑양(22·교육학과4년), 尹曦珍양(22·국문과4년), 朴潤姬양(22·국문과4년)등 5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달 26일하오2시께 교내 도서관과 학생회관등에서「반파쇼투쟁선언」,「축제백서」등 유인물 1천여장을 뿌리며 반정부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 독립유공자 黃德允옹

항일독립 유공자 黃德允옹(경기 光明市鐵山洞58)이 31일 상오11시50분 노환으로 順天鄕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3세. 발인은 2일 상오 10시 順天鄕병원 영안실. 장지는 南서울공원묘원. 연락처⑳7 0 1

# 證言비용 法院서 즉시지급

## 신청자 豫納않으면 소환不可

### 大法「간소화 예규」

앞으로 민·형사재판에출두하는 증인은 증언이 끝난직후 법원에서 증언비용을 받을수 있게됐다.

또 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한 원고나 피고는 반드시 공판전날까지 법원에 증언비용을 예납해야한다.

대법원은 1일 이같은내용을 골자로한「증언비용지급절차간소화를 위한 예규」를 마련,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증언비용 지급절차가 번거로와 대부분의증인이 증언비용청구를 포기하던 폐단을막고 법원을통하지않고 증언비용이 신청인과 증인사이에 직접 오감으로써 허위증언의 소지가 있었던것을 시정하기위한것이다.

한편 현재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비용법에는 신청인이 증언비용을 법원에 예납하게 돼있었으나 잘지켜 지지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증언비용을 미리 예납하지않을때는 재판부가 증인을아예소환하지못하도록못박았다.

또 지금까지는 예납이돼있다해도 각심급의 판결이 끝난후에야 증언비용을 지급하기때문에 증언비용을 받기위해 다시 법원에 와야했던 불편을 없애기위해 증언이 끝난직후 증언 비용을 지급받을수 있게 한것이다.

이를위해 재판장은 공판때 인장을 지참,증언이 끝난직후 기명날인한 증언비용청구서를 증인에게 내주어 증인이 바로 법원총무과에서 증언비용을 받을수 있도록했다.

현재 형사공판에 출두한 증인의 증언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있고 민사재판에서는 신청인이 법원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에 준해서 예납한 비용에서 지급하고있다.

## 수영장消毒 철저히

### 保社部 지시

보사부는 1일 여름철을맞아 이달말부터 개장될 전국 수영장에대해 욕수의 잔류염소량을 0·4~0·6PPM이 유지되도록 염소소독을 철저히해 아폴로눈병, 각종 피부병및 기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토록하라고 각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수영장개장전에 시설을 점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원제준수, 과다노출등의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토록 하기위해 업주및 종사자에대한 교육도 실시하라고 지시했는데 위생관리상태 점검결과 위반업소로 적발되면 휴장조치등 행정처분을 내리게했다.

# 회사警備員 피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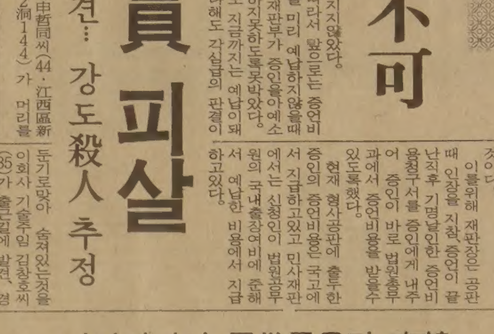
### 盜難 철제금고발견… 강도殺人 추정

1일 상오8시5분께 서울江西區新亭1洞108수도중기(대표 權處德·54)포크레인부사무실에서 경비원 申哲同씨(44·江西區新亭2洞144)가 머리를 둔기로맞아 숨져있는것을 이회사 기술주임 김창호씨(35)가 출근길에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金씨에의하면 이날 사무실문을 열어보니 申씨가 피투성이가된채 소파위에 담요를 덮고 있었다는것.

경찰은 이회사에서 1㎞떨어진 安養川변에서 범인들이 부스러다 버리고간 현금1백만원, 자기앞수표3백만원등 4백만원이든 이회사의 철제금고를발견, 강도살인사건으로보고 수사중이다.

## 나이지리아 民俗무용단 來韓



나이지리아 민속무용단 일행 38명이 한국일보社·한국방송공사초청으로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갖기위해 1일 하오 KAL편으로 한국에 왔다.(사진)

나이지리아전통의상차림에 밝은 표정을지으며 트랩을 내린 단원들은 한국의 날씨가 무척 서늘하여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 무용단을 이끌고 온 튜니지·오롤토라 나이지리아사회개발 청년및 문화성차관보는『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국과 나이지리아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부산·광주등에서 공연을 갖게될 이무용단은 나이지리아 19개주에서 선발된 일급무용수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레퍼터리『시디베공주의결혼』을통해 나이지리아 토속의 춤사위와리듬의정수를 보여주게된다.

## 높은 자리의 孤獨

### 빌딩공사장 크레인技士 朴幸二씨

## 2백m上空이 일터 "땅이 그리워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고독하다고 한다. 여의도에 날씬한 몸매를 드러내기 시작한 63층짜리 대한생명빌딩공사장 꼭대기에서 일하는 新東亞건설의 타워크레인기사 朴幸二씨(39·사진)는 의미는 달라도 높은 자리의 고독을실감한다.

그가 일하고 있는곳은 지상2백m지점에 설치된 크레인기계실. 45층까지된 철빔위에 설치된 기계실에앉아 크레인빌등 자재를달고 이리저리 움직인다.밑에서보노라면 재채기가절로나온다.

그의 친구는 바람과 새와 그리고 고독이다. 약구공만하게 내려다보이는 지상의 인부들을 바라보고 앉아있노라면 자신은 딴세계에 살고 있는듯한 착각이 들곤한단다.

그는 벌써 13년동안이나 이런생활을해왔다. 26세때 중기면허를따고 때마침 국내에 처음 도입된 정부종합청사 타워크레인조수로 취직했다. 친구들은『그 높은곳에서 일하는게 무섭지 않느냐』고 묻지만 고교시절 암벽타기를 자주했기 때문인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그는 롯데호텔, 대한화재빌딩, 서울대병원등 큰건물의 설계만 나오면 高空의 단골손님이 됐다.

보통키지만 86㎏의 거구인 차씨의 별명은 곰. 친구들이 인상과 담력 능력에 잘어울리는 애칭이라고 한다며 씨익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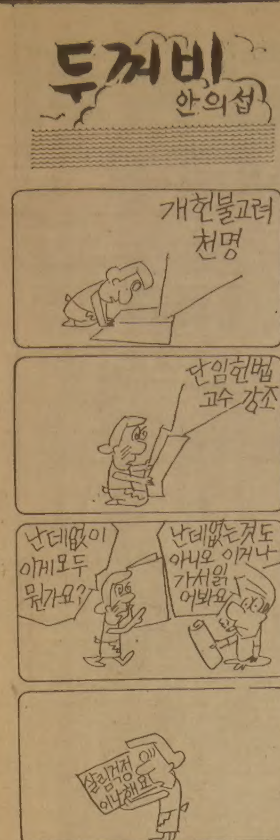
그의 일터로 올라가는 승강기안에서 기자는 귀가 윙윙거리고 금방 승강기가 떨어질것 같아 현기증을 느꼈으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여기저기를 점검까지한다.

이러한 그도 여름엔 더 고독감을 느끼고 땅바닥이그리워진다.

『높은 곳에서 일하니 시원하겠다』는 사람도 많지만『태양이 그만큼 가까우니 더 더운게 아니냐』고 웃으며 불볕더위가 싫은눈치.

한달간 고독과 싸워 받는 보수는 55만원. 한국제일의 고층빌딩을 짓는데 기여한다는 긍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63층 (2백57m)까지 다올라가면 仁川앞바다가 보인다고해 가끔 서쪽을바라보며「높은자리의 고독」을 털고있다.

【朴珍烈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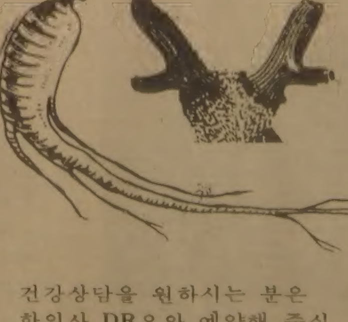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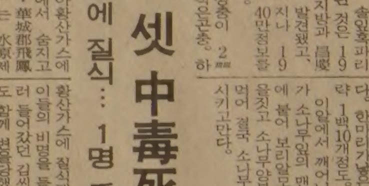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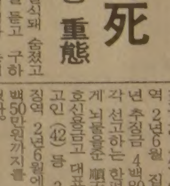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 : 30PM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석 광 우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 실업야구 星武에 역전승
# 적시타연속 韓一銀패권

금융단대표 韓一銀行이 실업야구선수권대회의 첫 패권을 잡았다.

금융단리그 1위로 결승토너먼트에 올라와 결승서 星武와 맞붙은 韓一銀行은 에이스 金龍洙의 호투와찬스때마다터진 적시타에 힘입어 초반의열세를 뒤집고 9―3으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韓一銀行이 실업야구의 정상을 차지한것은 81년실업 3차리그우승이후 2년만이다.

韓一銀行은 금융단 실업단으로 나뉘어벌어진 예선리그서 3전 전승을기록하고 준결승과 결승서도잇달아이겨 5게임을 모두승리로 장식했다.

금년 韓一銀 유니폼을입은 中央大출신 투수 金龍洙는 연투의 피로에도 불구, 이날도 星武에 12안타를 얻어 맞았으나 동료타자들의 지원으로 실업데뷔후 첫우승의 감격을 맛보았다.

반면 星武는 전남商業銀과의 준결승에서 3안타만을 내주며 완투한 사이드드로 黃善泰를 선발로내세워 4회까지 3안타 1실점으로 잘막았으나 5회말黃의 컨트롤이 급격히 흔들어지기 시작했다.

黃은 1死후 韓一銀8번 鄭允敎에 2루타를 맞은후 포볼·데드볼로 만루의 위기를맞은채 물러났으며 릴리프로 들어온 丙秉俊이 첫타자인 2번 許旭에 좌전안타를 허용, 3―2로 역전을 당했다.

韓一銀은 7회말에도 9번 崔圭鋒、1번 安英鎭、3번 金鍾鎭이 2루타 3개와 수비진 에러로 3점을 추가했으며 8회말 8번 鄭允敎의 투런 홈런등으로 또다시 3득점, 승리를 굳혔다.

星武는 9회초 마지막 반격서 無死에 주자 1、2루의 찬스를 맞았으나 9번대타 宋寅式의 타구가 유격수 라이너로 잡혀 트리플플레이가 되는 바람에 점수를 얻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대회 최우수 선수에는 韓一銀 1루수 朴尙國이 선정됐으며 투수 金龍洙는 우수투수상을 수상했다.

◇결승전적

| | | | | |
|---|---|---|---|---|
| 星武 | 001 | 100 | 010 | ―3 |
| 韓一銀 | 010 | 020 | 33× | ―9 |

# 金在博 결승타에 張明夫 KO

억센 행운과 뛰어난 기교로 타자들을 울리던 張明夫가 뜻밖에 천적을 만났다. 국내무대서 자라난 타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2~3일 간격으로 마운드에 올라 괴력의 8연승을 올렸던 三美에이스張明夫는 31일밤 잠실구장서 2―0으로앞서달리던 MBC에 8회말2―2의 동점을 만들고 또 한차례의 역전승을 노렸으나 9회말 2死1, 3루고비서 MBC 3번 金在博과무리한승부를걸다우전 결승타를얻어맞아 KO되었다.

## 프로야구 三美 끌찌MBC에 덜미

만능스타金在博은 특히 張明夫의 피칭에 강해 최근의 슬럼프에도 불구하고 張에 치명타를 가해 연승가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金在博은 張明夫와의 싸움에서 4월6일 4타수4안타, 5월8일 3타수1안타, 31일밤 5타수 1안타에 결승타점을 기록 했다.

張明夫의 시즌 통산기록은 14승4패 1세이브. MBC에게만은 약세를 면치못하고 4연승만에 1패를 더해 21승13패를 기록 했다.

◇31일전적

◆잠실

| | | | | |
|---|---|---|---|---|
| 삼미 | 000 | 000 | 020 | 2 |
| MBC | 000 | 001 | 101 | 3 |

◆부산

| | | | | |
|---|---|---|---|---|
| 해태 | 012 | 200 | 002 | 7 |
| 롯데 | 200 | 000 | 201 | 5 |

◆대구

| | | | | |
|---|---|---|---|---|
| OB | 100 | 521 | 213 | 15 |
| 삼성 | 101 | 222 | 110 | 10 |

▲홈런=尹東均(1회) 申慶植 鄭宗鉉(7회·2점) (8회·이상 OB)

◇코너즈물리친 바슬랭 31일 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 준준결승전에서 세계최강의스타 지미·코너즈(미국)를3―0으로 完破, 이변을 일으킨 프랑스 크리스토프·로제·바슬랭이 위력있는 백핸드스트로크를 구사하고있다. 【파리AP=聯合】

# 국제蹴球연맹「블라터」사무총장

멕시코시티=安奉煥특파원

인터뷰

## "底力있는 한국팀 가장人氣 세계女子대회 3년내 誕生"

세계축구계의 이목은 3일 멕시코서 개막되는 제4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쏠려있다. 세계 청소년대회는 월드컵의 웅장한스케일에 미치지못하지만 미래의 스타를 발굴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대회개막을 앞두고 본사 安奉煥특파원은 대회운영총책임자인 국제 축구연맹(FIFA)의 블라터(U.S.Blatter) 사무총장과 인터뷰, 세계청소년 축구의 흐름과 FIFA의축구발전계획등을 알아보았다. 【편집자註】

―한국은 과거 세계대회에 두차례 도전하여 실패했다. 한국 청소년 대표팀의 8강진출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멕시코에온 한국팀의 연습내용을 보지못해 구체적인대답을 하기곤란하다. 그러나 2년전 濠洲대회서 나는 한국이 이탈리아를격파하는것을 본적이있어 한국팀의 저력을 알고있다. 이번대회 참가팀중 한국팀은 가장인기있는 팀의 하나가 될것이다.

―인기를모을 팀으로 보는이유는 무엇때문인가.

▲세계대회에 여러번 참가하여 상당한 경험을쌓고 기술을 축적한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대회의 가강 강력한 우승후보는.

▲매우어려운 질문이다. 참가팀들은 각지역예선을 통해 뽑힌 우수한 팀들이기때문에 실력이 엇비슷하다.

우리는 82년 스페인월드컵대회를 상기할 필요가있다. 카메룬 알제리와 같은 새로운 팀들이 예상을 뒤엎고 선전했다. 이번대회서는 아시아·아프리카가 8강에 진출할지 모른다.

―세계청소년 대회는 날로 발전해나가고있다. 2년전 濠洲대회때보다 경기수준이 높을것으로 보는가.

▲물론이다. 참가팀들의 기술과 체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현재 FIFA가 계획하고있는 새로운 국제대회는 어떤것이 있는가.

▲16살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를비롯, 세계여자축구대회, 세계인도어(실내)축구대회를 들 수 있다. 이대회는 앞으로 3년이내에 탄생될 것이다.

―아시아축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전망이 밝다. 아시아는 인종과 문화가 다른 여러나라들로 이루어져있고 축구에대한 천부적재능을 갖춘 민족이 많다. 한국처럼 체력과 정신력이강한 나라에서 기술과 경험을 보강한다면 무서운힘을 나타낼것이다.

# 1,600m계주 한국新

## 韓體大팀、4초03단축

陸上 選手權

## 金相文·牟明姬 200m대회新

◇남고멀리뛰기에서 박영준(경북체고)이6m97을 뛰어 1위를 차지하는 순간。

제12회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 이틀째경기가 1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려 韓體大팀은 남일반 1천6백m계주서 종전 한국기록을 4초03단축한 3분14초58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남일반2백m레이스에서 韓國體大의金相文은21초97을 기록, 자신이갖고있는종전 대회기록 22초02를경신하고 대회신기록을세웠다.

첫날 1백m서 호기록을 세웠던 成樂群(동아대)은 2백m 레이스에 출전했으나 1백30m 지점서 근육통을 일으켜 기권했다.

여자 2백m 한국기록보유자인 牟明姬(서울대)는 스타트가 늦어 후반 전력질주했으나 24초86을 기록, 종전 대회 기록 26초47을 경신하는데 그쳤다.

남고 2백m에서는 晋州高의 崔容準이 22초10의 호기록으로 우승했으며 여중 2백m에서 25초34로대회신기록을 세운 尹美京과함께 단거리 유망주로 부상했다.

여자트랙경기 가장 긴레이스인 여일반3천m에서는 9분37초03으로한국기록을 갖고있는 金順花(고려대)와 여자마라톤의 틈려너安春子(산업기지)가 열전을 벌인끝에 金順花가 9분58초8로 1위를 차지했다.

安春子는 레이스중반 金順花를 따돌리고 한때 선두에 나섰으나 金의 추격을 받아 곧 뒤로 처졌으며 마지막 2백m를남기고 金順花를 따라 잡으려고 전력질주 했으나 실패했다.

한편 여중1백m 허들에서 한밭여중의 朴貞禮는 15초19로 중등부 최고기록을세우고 우승,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다. 뚜렷한 강자가없는 남고투포환에서 崔東林(서울체고)은 16m46을던져 우승, 주목을 끌었다.

◇제2일기록 (각종목 1위)

▲남일반투포환=한민수(성균관대)15m23▲여일반1백m허들=강병희(부산대)15초37▲동여고=김점숙(동래여고)15초41▲여일반2백m=모명희(서울대)24초86(대회신)▲동 3천m=김순화(고려대)9분58초8▲남고투포환=최동림(서울체고)16m46▲동투창=김기훈(청주고)64m42▲동멀리뛰기=박영준(경북체고)6m97▲동2백m=최용준(진주고)22초10(대회신겸고등부타이기록)▲동1백10m허들=손의태(경원고)14초70(대회신)▲여중멀리뛰기=권월선(인천여중)5m52▲남중2백m=정수영(불광중)23초75(대회신)▲여중1백m허들=박정례(한밭여중)15초19(중등부 최고기록)▲여중2백m=윤미경(인천여중)25초34(대회신)

# 스포츠 黃金期 가져다준 헤비급 王者「잭 뎀프시」

## 享年 87세 老患으로 死亡

◇불멸의 헤비급 鐵拳 잭·뎀프시。미국프로복싱 戰前시대의 대표적 스포츠맨이었다.

### 戰前의 가장위대한 복서

프로복싱 불멸의 헤비급왕자 잭·뎀프시가 1일새벽(한국시간) 뉴욕 맨해턴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두었다. 享年87세.

1919년부터 1926년까지 세계헤비급 챔피언을 지내는등 20여년동안 세계헤비급정상을 지배했던 뎀프시는 홈런왕 베이브·루드이후 戰前시대의 가장위대한 미국의 스포츠인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뎀프시는 2년전부터 건강이 나빠졌으며 82년4월11일에는 병원에입원, 심장보조기구(페이스메이커)를 부착하고 생명을 이어왔다.

장례절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싱전문지「링」의 발행인겸 편집인 버트·슈거씨는 『뎀프시야말로 스포츠의 황금기를 가져다준 빛나는 인물이었다. 60년뒤 무하마드·알리가 출현했지만 뎀프시는 가장위대한 복서였다』

모르몬학교 교사의 아들로 1895년6월24일 콜로라도州 매나사에서 태어난 뎀프시의 본명은 윌리엄·해리슨 뎀프시. 권투선수생활을 시작하면서 리네임을 잭·뎀프시로 바꾸었다.

1919년7월4일 제시·윌라드를 3회KO로 물리치고 세계챔피언이 되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강펀치를 보고 팬들은 「매나사의 살인자」「정글의 야수」라고 불렀다. 그는 1919년부터 26년까지 7년간 타이틀을 지켰다.

1921년 7월2일 프랑스 챔피언 조르즈·카르팡티에와의 타이틀매치는 「세기의 대결」로 인기를 끌었으며 뎀프시는 이경기서 프로복싱 사상 처음으로 1백만달러를 받았다.

26년 9월23일 진·터니에게 타이틀을 빼앗긴 뎀프시는 이듬해 재도전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이 경기는 롱·카운트로 말썽이 나기도 했다.

7회에 터니가 뎀프시의 주먹을 맞고 다운, 9카운트에서 가까스로 일어났다. 팬들은 주심이 고의적으로 카운트를 천천히 했다고 비난했고 주심은 뎀프시가 중립코너에 가지 않았으므로 빨리 카운트할수 없었다고 해명, 큰 혼란이 빚어졌다.

현역은퇴후 뎀프시는 권투심판, 프로모터로 활약했다.

뎀프시가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난것은 80년4월 복싱기자협회의 만찬. 이후로는 맨해턴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조용히 살아왔다. 【뉴욕=聯合】

# 아시아五輪委 來9월5일 서울서 연기

대한체육회는 6월2일과 3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OCA(아시아올림픽위원회) 회장단회의를 9월5일과 6일로 연기했다.

체육회는 쉐이크·파드 OCA위원장이 국내 사정으로 OCA회장단회의를 3개월간 늦춰달라는 요청을 검토, 이같이 결정 했다.

OCA회장단 회의에서는 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유치국인 한국을 부회장국으로 선임하는 문제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 張吉山 〈1756〉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 第一章 彌勒 (216)

대개 그 소문은 대탄근처 대전리 벌판이 활방(活方)이라 그리로 모여야 무사히 환난을 넘긴다는 데로 모아졌다. 먼저 연천 마전 영평의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동네마다 떼를 이루어 벌방을 바라고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집안에 남아있던 자들도 다른 동네 사람들이 길을 한꺼번에 메우며 지나가자, 서로 묻고 대전리라는 말을 주고 받으며 자기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맞장구 치면서 어물을 챙겨지고 행렬에 끼어 들었다. 소문은 재빠르게 번져 나갔다. 무엇보다도 간밤의 폭풍우는 그들을 밤새껏 불안하게 하였던 터였다. 북하면 난리요 자칫하면 관가에 불려가 혼곤겁을 당하고 흉년은 해를 걸러 계속되고 역병은 철마다 돌았으니, 백성들은 차라리 천변이 일어나 이런 세상이 끝나고 착한 백성들끼리 오손도손 사는 새 천지가 바로 서야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때를 지어 활방으로 찾아가는 이들은 향반이나 부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도 차마 도적이라도 맞을까 하여 집을 비우지 못하고 솟을대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하인을 보내어 다급하게 물릉지마다 백성들은 쾌활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재산이 무슨소용인가. 사람났고 재산났지. 재물로 사람을 업수이 여겼으니 곳간 열쇠 쥐고 살려 달라지』

『천지자리나 되는 모양일세. 하늘앞에 임금인들 무슨 소용일까』

『에이그、권세와돈은 이 바람에 싹 쓸어가 버리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네』

불안한 가운데도 일반백성들의 이러한 활기는 차츰 전파되어 호기있는 자들은 제법 그지주를 만나 지나칠적에도 하정배를 드리지않고 뻣뻣이말하였다.

『작료는 이제 끝이우. 산과 땅이 없어질 것이니 네땅 내땅이 없게 된다우. 잘 사시우, 우리는 활방으로 가니까』

이렇게 민심이 들뜬는 가운데 이를테면 양주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삭녕에서도 형편은 같았다.

환갑이 넘은 노인들인 이유선(李有先)과 백선완(白成完)은 아침에 논을 보러 나왔다가,

『이 사람아 양주서 구인이 나와 만백성을 구한다네. 간밤에 용이 나타났다네』

『나무 들었네. 활방은 양주 대전리라면서 거기가면 목숨도 살뿐 아니라 만병이 다 낫고 새사람이 된다지. 내가 십여년을 가슴앓이로 고생했는데 그 좋다는 이천(伊川)약수를 먹고도 효험을 못봤어. 우리 속는셈치고 가볼까』

젊은 이두완(李斗完)이는 허총(許摠)노인과 함께 배를 부려서 아픈사람이나 노약자를 태우고 대탄으로 출발하였다.

또한 삭녕동촌(東村)의 중년농부 김천선(金天先)과 림기읍(任己挹)은 불안한 가운데 논에서 물고를 손보고 있더니 지나가는 소금장수가 말을걸었다.

『댁네들은 대전리에 안가슈? 지금 상리(上里)에서는 온마을 사람들이남부여대하여 양주쪽으로 발정하였는데 나무 이장사때려치우고 얼른 포천들러서 활방으로 가려는 중이우』

# 죄와 십자가

길 ◇韓景職◇

어떤 거짓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외친는데 그의 이마는 언제든지 은으로 만든 둥근 정으로 가리고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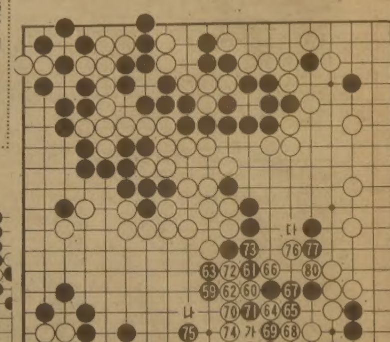
이사람이 잘때에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그것을 한번 뜯어보았더니 그이마에는 문둥이 흔적이 있더라고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할때에는 죄가 아름답게 보였고、죄의 마력에 끌렸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우리는 죄라고하는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 주님까지 그 큰고통을 받게하였다는 죄의정체를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하나님의사랑、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다가 세상것을 바라보라。전에는 물질이 그렇게 귀해보였으나 그물질이 안중에 들어오지 아니한다. 전에는 세상의 지위나 권세같은것들이 그렇게 귀해보였으나 이제는 대수롭지않게 보인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에게 있는것이다.

# 名人戰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9譜 160~181 (각5시간·덤5집반)

白 (5段) 姜 勳 〈2勝2敗〉
黑 (6段) 張 秀 英 〈4勝0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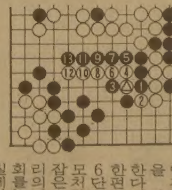
## 白、勝負手 불발

白60은 옥쇄를 각오한 승부였다. 이수로 72면 黑71정도로 후퇴해도 하변이 온통 黑집으로되어버릴 것이니 白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黑은 좌우에 늘어서있는 막강한우군을 배경삼고 61로젖혀 정면으로 공격한다. 이리하여 불가불 처절한 백병전인데 黑69때 白70이 현혹적인 수단。黑이71을 태만하면 白「가」로 패를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黑71은 정수.

白72에 7분、74에 5분、姜5단은 최강의 수단을 찾는다고 안간힘을 다한다。

한편 張6단도 모처럼 잡은 승리의 기회를 놓칠세라 신중을 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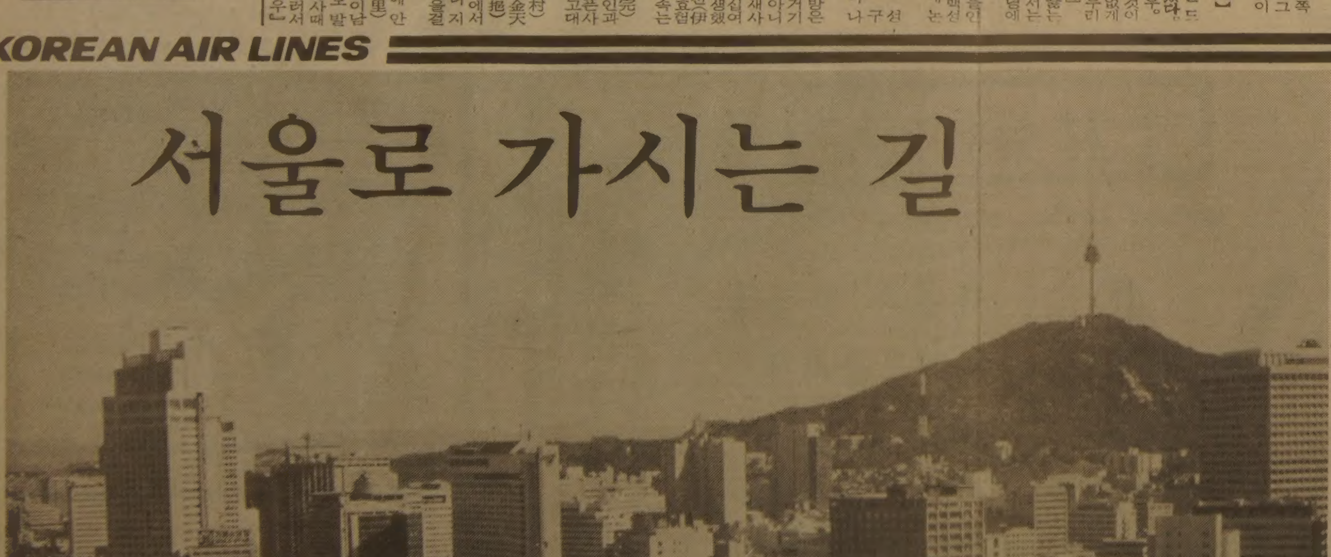
黑75는 8분. 이한수가 결정타였다。결국 黑81때 姜5단은 白旗를 들었다. 다음白「나」로 반발했자 참고도처럼 黑1이하 13까지면 수상전이 되지않는다.

또 白「다」로 밀어올려 77쪽의 黑2점을잡을수는있지만 그것으로 계가가 안된다고 깨끗이 단념한것이다. 【一凡】

한국일보 533-2361

KOREAN AIR LINES

# 서울로 가시는 길



●뉴욕에서 화·목·금·일
●로스앤젤리스에서 매일
●호노루루에서 매일

●대한항공은 주23회의 가장 편리한 스케쥴로 미국과 한국을 가장 빠르게 직결하고 있읍니다.
●B747 SP와 B747점보기로 넓은 공간에서 안락한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만이 통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 고유의예절로 정성껏 모십니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모국 방문이나 상용 여행시는 언제나 어느 항공사보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요.

精誠껏 奉仕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로스앤젤리스 (213) 484-1900 · 로스앤젤리스공항 (213) 646-4866 · 뉴욕 (212) 371-4820 · J.F.케네디공항 (212) 632-8730 · 호노루루 (808) 923-7302/6 · 시카고 (312) 558-9300 · 샌프란시스코 (415) 956-6373 · 워싱톤 (202) 785-3644 · 필라델피아 (215) 665-9080 · 아틀란타 (404) 522-7461 · 달라스 (214) 744-5981 · 밴쿠버 (604) 689-8431 · 토론토 (416) 862-8250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블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체 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타.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에 맞는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및 진단, 처방조제, 체질별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전재한약재,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급만성제질환, 신경성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및 예방, 허약체질, 기타 건강상담 환영.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한식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1명
중국요리사 헬퍼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

스토아에서 일할 여자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 368-8834(커피숍에서 일해본분 우대)

---

Operator required, To operate a Gross A. Machine,
Some English Required,
Please call Mary Anne, 593-0320.

---

남자헬퍼 구함.
풀타임.혹은 파트타임
366 Bloor St. W. Mrs. 박.

---

양장과 양복 재봉기술자 구합니다.
보수 주 250불 이상.
전화 : 366-0459. Mr. 강.

---

소비자 생산시장에 의욕을 가진
영어에 능통한 분을 구합니다.문의 : 416-292-2659.

작은 사업을 경영했거나 소유하신 분으로 매니져, 또는 세일을 할 영어에 능통한 4분을 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416-292-2659.

---

입주하셔서 할머니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7-9911(오후6시 부터 8시사이)

---

Student Wanted
(Gain Gas Bar Attendent)
Add : 877 Dundas St. W.

---

착실한 남자 가게헬퍼 구함.
Part Time. Toronto East지역.
전화 : 466-3995

---

Mac's Milk Store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Cashier 구함.(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

아기 돌봐 주실분 구함. 몬트리올지역. (적어도 2개월 내지 6개월동안). 숙식·교통편의제공·우대함
전화 : 921-7105(Mrs. 리 오후4시이후)

---

재봉사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

한국밑반찬 만드실 경험있는 분 구함.
직접 내방 바람.
주소 : 5568 Yonge St. 동아식품.

---

▲씨알 한국인학교에서 여름에 일할 대학생 운전수를 구함. 주급 $200.
▲교사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3년간 여름동안만 Internship으로 일할 대학생 구함.
8주 주급 $175. 이력서를 150 Madison Ave. Tor. M5R 2S5로 보내주시기 바람.

---

유경험자 Store Helper 구함.
Scarboro 지역 거주하시는 분
전화 : 439-9531

---

입주해서 아기 봐 주실분 구함.(브램톤지역)
(2살). 월요일~토요일 저녁까지.
전화 : 456-0567, 451-2560, 453-0643

---

Store Cashier 구함.
(Full Time 혹은 Part Time)(Eglinton & Dufferin 지역)
전화 : 783-0683

---

성실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 Full Time Helper 구함.
자세한 문의는, 493-2228
491-6773

---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구 직

방학동안(6~8월말까지) Store Manager로 성심껏 일해 드리겠읍니다. 각종 Store에서 다년간 Manager로 일한 경험있음.
Mr. 박 530-1838(오후5시이후 전화요망)

---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 매 매

350 Bed Institution
Owner Must Sell, $399,000
Located 2 Hours West of Metro on 6 1/2 Acres with Main Building & Two 160 Bed Dormers, Complete Full Kitchen, Dining Rm., Seats 200, Full Recreational Facilities, 2 Special Care Ward, Parking for 300 Cars.
Swimming Pool, All Alarm Systems.+ Many More Extras, All for $399,000, Perfect for Camp, Rest Home or Any Institutional Use.
CALL MR. MADSEN For Full Details,
Re-Max, Richmond Hill Realty Inc.
Realtor, Tel : (416)883-4922

---

셋압한지 3개월 된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전망 좋음. 현재 주매상 $3,000 개런티.
렌트 $500(5년) + $590(5년).
지하실 포함. 아스킹 : $2만 + 스탁(All Cash원함)
1221 Danforth Ave.

---

76년 Bonair Hard Top Trailer (6명용 장비포함) 급매코자 함.
전화 : 298-0354, Mr. Ye(오후5시이후, 주중연락)

---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

가게와 살림집 딸린 건물 급매.
○살림집 : 3 Bedrooms, 거실, 부엌, 변소(4 pc)
○가 게 : 년매상 25만불이상, 우체국도 겸함.
Asking 12만불, Howard Moore
(705)325-4448, (705)325-4290
Moore & Lougheed Ltd.

---

식자기 팝니다. Spica-K형. (일본 Shaken 회사제) 한글·한자·일어·영어 식자가능.
전화 : 977-3745 Mr. Cheng

---

턱숍급매. 리스 5년 +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

드라이크리닝(Pick Up) Store 급매.
Pikerling지역. 주매상 $1,400.
Rainbow Realty. 전화 : 752-7575

---

Fast Food Store Salada Sandwich & Soup
$3,500 Weekly(Bloor & Yonge).
Rainbow Realty. Mr.Sotos 752-7575

---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6,000.
리스(5년 + 5년). Asking : $61,000.
전화 : 1-528-3986. 해밀톤 Mr. 리.

---

자동차 팝니다. Sale Price $5,000.
닷산 200 SX 80년도형.
전화 : 536-8666

---

House for sale, Thornhill Area, 1,800 Sq. Ft.
4 Bedrms, Fire Place, Central Air Condition,
Many Extra, Tel : 889-5320

---

3년된 하우스 팝니다.
타주 이주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팝니다.
가격 : $97,000. 전화 : 499-3764

---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

전망좋은 사진가게 판매
증명사진, 액자, 인화, 현상, 여권사진
전화 : 335-6601(버링톤)

---

그로서리스토아와 2 Bedroom 딸린 건물 급매.
Asking 12만불.
433 Pape Ave. Tor.

---

Yonge St.에 있는 Snack-bar(커피, 샌드위치)
오전7시 open. 오후4시 close. 주5일 영업.
적은 자금으로 운영가능. 전화 : 245-4614(오후7시이후)

---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멀안에 있는 Naturalfood Nu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멀.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멀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

Mall 안에 있는 Gift Store 급매.
연매상 12만7천불. 리스 1990년까지.
Asking:2만불 + Stock. 전화 : 282-6282

---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

One Bachelor 지하실 세놓음.
전화 : 762-7958 Mrs. 김.
(아침 8시-10시, 저녁 4시반-10시까지 전화요망)

---

▲2 Bed Room 살림집 렌트.
다운타운 지역. 7월1일 입주. 월 $450.00
▲방 세놓습니다. Dry하고 깨끗함. (다운타운)
월세 $200.00 533-2363(저녁시간)

---

부엌달린 방을 찾고 있읍니다. 새로 이민 온 부부임. Room 하나, 혹은 지하실 방도 무방함.(6월1일 입주희망)
전화 : 360-1790

##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챠챠,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자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지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

장미원(Rose Garden)일요일도 영업함(am10-pm5)
◉각종 플랜트·어렌지먼트 ◉Party Time Supplies
◉웨딩 & Special Day Cake 주문배달 ◉후룻바스켓
◉결혼·회갑·장례등 각종 예식 화환 염가판매
117 O'Connor Dr. (Victoria Park W. & St.Clair E)
전화 : 757-1010(B), 757-0227(R) Mr. 김

##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 페인트와 벽지 취급. 무료견적. 상담환영.
619·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24-1967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욱 533-9061

---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

CENTURY 21 복덕방
조춘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

T.V. 수리는 .........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이민생활의
24시를 지키는
교민의 길잡이
「한국일보」
희망찬 내일에의 설계 위해
아침 식탁에 이 신문을…

#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어비스
533-2361

## 교민단체·협회

(경제단체)

| | |
|---|---|
| 무역인협회(이영현) | 535-3305 |
| 백커후렌차이즈협회(김병진) | 755-1746 |
| 상공인협회(조병억) | 444-3716 |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차선겸) | 533-7923 |
| 코리아타운번영회(이부현) | 535-2091 |

(체육단체)

| | |
|---|---|
| 올림픽후원회(함의현) | 622-3674 |
| 캐나다체육회(이병권) | 248-8846 |
| (체육회산하단체) | |
| 볼링협회(정용필) | 742-2193 |
| 사격협회(백경락) | 755-7635 |
| 스키협회(박경택) | 491-1931 |
| 씨름협회(석종윤) | 537-5952 |
| 아이스하키협회(이종원) | 741-2522 |
| 야구협회(김문량) | 759-6111 |
| 유도협회(성용창) | 759-3583 |
| 축구협회(고광남) | 731-1229 |
| 탁구협회(차선행) | 241-4755 |
| 태권도협회(서정길) | 630-3095 |
| 테니스협회(김병욱) | 493-0877 |
| 골프클럽(김현모) | 251-6578 |
| 배구협회(문영환) | 923-3846 |

(일반단체)

| | |
|---|---|
| 간호협회(김향순) | 221-6064 |
| 경주이씨종친회(이승영) | 451-4450 |
| 공산권선교회(김용출) | 755-9766 |
| 교역자협의회(안병한) | 755-7979 |
| 교육연구회(윤택순) | 534-3353 |
| 기독여성연합회(윤수복) | 273-6207 |
| 동우회(서명식) | 249-6430 |
| 라이온즈클럽(이창복) | 261-6111 |
| 모악회(임철원) | 533-9061 |
| 문인협회(박순배) | 691-1714 |
| 미술인협회(조덕남) | 622-5328 |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캐나다노회(안병한) | 755-7979 |
| 민주사회건설협의회(박찬웅) | 465-8872 |
| 민족상위원회(구상회) | 533-2361 |
| 보라매(이태근) | 961-2961 |
| 봉디아친목회(성용창) | 759-3583 |
| 사진협회(전경수) | 438-4435 |
| 송공문화협회(이근우) | 444-3658 |
| 와이즈맨클럽(알파)(나상선) | 745-5401 |
| 와이즈맨클럽(베타)(홍승규) | 822-3163 |
|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김 홍) | 245-5260 |
| 약사회(윤여화) | 621-0323 |
| 영남향우회(장필규) | 743-8220 |
| 요산선교회(민상기) | 921-9883 |
| 이민사자료연구실(이석현) | 533-2361 |
| 인권옹호위원회(윤호영) | 922-1199 |
| 장로연합회(전태균) | 690-2725 |
| 재미과학기술자협회(주병돈) | 845-4216 |
| 컴퓨터협회(박성수) | 669-5232 |
| 토론토대학한국학과후원재단(윤여화) | 621-0323 |
| 토론토교회학교교사연합회(윤승열) | 277-9350 |
| 한국노년회(조영호) | 755-8079 |
| 한국문화연구회(유재신) | 922-3863 |
| 한국민속예술후원회(서준경) | 621-0948 |
| 한인기독대학생회(김명기) | 267-8084 |
| 한인대학생회(정태교) | 749-0220 |
| 한인장학재단(강공선) | 239-2193 |
|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나상선) | 745-5401 |
| 한인연합부인회(양혜신) | 494-1856 |
| 한인회(장순채) | 755-9288 |
| 한인회관건립위원회(조한철) | 745-1160 |
| 한인총연합회(오기송) | (514)489-8753 |
| 한인 Y. M. C. A.(김창열) | 536-1166 |
| 한·카청년문화협회(이인용) | 789-7351 |
| 해군동지회(장영채) | 532-7421 |
| 해병전우회(남상현) | 621-2059 |
| 호남향우회(마보훈) | 677-1888 |
| 황해도향우회(김춘순) | 368-1802 |
| 온타리오 한인대학생동창회(윤주석) | 245-2125 |

(음 악 회)

| | |
|---|---|
| 부부합창단(김승순) | 881-8211 |
| 토론토한인오케스트라(윤여화) | 881-8211 |
| 토론토한인합창단(문남귀) | 222-2901 |
| 동불중창단(문남귀) | 222-2901 |

## 캐나다기관

| | |
|---|---|
| 무료번역안내 | 965-1458 |
| 무료변호사선정 | 366-9631 |
| 무료영어교실안내 | 965-4331 |
| 생활비보조 | 487-4392 |
| 소비자보호국 | 963-1111 |
| 시민권신청(동부) | 966-6424 |
| (서부) | 966-8001 |
| 법률봉사보조회 455 Spadina Ave. | 596-1349 |
| 온타리오의료보험 | 482-1111 |
| 위급(경찰, 화재, 앰브란스) | 911 |
| 웰컴하우스 | 965-3021 |
| 노인을 위한 제반안내실 | 965-5103 |
| 일기예보 | 676-3066 |
| 저임대아파트 (ONT하우징) | 966-3600 |
| 집세분쟁상담 | 367-8572 |
| 인종차별신고 | 366-3048 |
| 이민족전담경찰관 | 967-2029 |
| 빚청산상담소(크레딧·카운슬링) | 366-5251 |

주한캐나다대사관 (서울 776-4062 무교동45번지 코오롱빌딩 10층)

## 한국기관주재업소

| | | |
|---|---|---|
| 한국대사관 | (613)232-1715 | 151 Slater St. #608 Ott. |
| 토론토총영사관 | 598-4608 | 439 University Ave. Tor. |
| 몬트리얼영사관 | (514)845-3243 | 1000 Sherbrook W. #2205 |
| 대한무역진흥공사 | 977-8784 | 20 Queen St. W. Box 28, #2802 |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 | |
|---|---|---|
| 금호실업 | 449-1109 | 2 Sheppard Ave. E. #1702 Tor. |
| 국제상사 | 667-0991 | 600-A Magnetic Dr. Downsview |
| 금성사 | 863-0049 | 45 Richmond St. W. #4002 Tor. |
| 대한항공 | 862-8250 | 390 Bay St. #720, Tor. |
| 삼성전자 | 447-2419 | 40 Winford Dr. #211, Tor. |
| 유진상교(주) | 630-0313 | 1230 Sheppard Ave. W. #15, Downsview |
| 현대종합 | 477-0202 | 96 Steelecase Rd. W. Markham |
| 동양산업 | 499-4534 | 30 Ecclesfield Dr. Scar. |

## 금융기관

| | | |
|---|---|---|
| 외환은행(본점) | 364-2890 | 2 First Canadian Place P.O.Box 402 #1140 |
| 외환은행(지점) | 533-8593 | 627 Bloor St. W. Tor. |
| 한일은행 | 865-0456 | Suite 6960, 1 First Canadian Place Toronto, Ont. |
| 조흥은행 | 363-3448 | Commerce Court North #1125 Tor. |
| 토론토한인신용조합(한상훈) | 533-9387 | |
| 천주교신용조합(이종현) | 363-0097 | |

###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속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 도서판매

| | |
|---|---|
|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태니카(이송원) | 463-7423 |
| (신용묵) | 535-2377 |
| 종교서관 (김명준) | 535-1920 |
| 기독교회관 (이정준) | 532-7907 |
| 범한서적(최규흘) | 690-2216 |

##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 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멧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 무용연구소

| | | |
|---|---|---|
| 김미영 | 499-5079 | 201 Vanhorne Ave. #509 Willow |
| 김용순 | 922-2241 | 268 Dupont St. |
| 김유수(사교춤) | 496-0318 | #204-50 John Garland Blvd. |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 개인지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Professional Violinist with Ba, Music, A.R.C.T.
전화 : 233-4200, Mr. Wong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 극 단

"얼"(이장성) 960-0074

##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 심리상담

김보경박사 1)705-549-3454 토요일 923-3336

## 투자·증권상담

| | | |
|---|---|---|
| 강상욱 | 361-3428 |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
| Boo-Kyo Kye | 977-1331 | Coulding Roses & Turner Limited |

## 실내설계

정기섭 실내 설계 전화 755-0308
각종 실내설계, 건축허가 및 시공
STORE, FLOWER SHOP, 도넛Shop, 사무실 디자인 등.

## 실내장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 드립니다. (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전화 : 362-1964
한번 방문하시거나, 상담 바랍니다.

## 식품점

| | | |
|---|---|---|
| 고려식품 | 531-2242 | 680 Bloor St. W. Tor. |
| 동양식품 | 248-5131 | 1662 Jane St. |
| 삼복식품 | 748-8270 | 2437 Finch Ave. W. |
| 서울식품(동부) | 291-8317 | 367 Pitfield Rd. |
| (서부) | 243-9544 | 1391 Weston Rd. |
| 제일식품 | 532-1054 | 712 Bloor St. W. |
| 한국식품(본점) | 532-2961 | 721 Palmerston Ave. |
| (동부) | 261-6111 | 2810 Eglinton E. |
| (서부) | 742-7711 | 1054 Albion Rd. |
| (미시사가) | 276-0787 | 257 Dundas St. E. |
| 한밭식품 | 274-5401 | 466 South Service Rd. |
| 한인식품 | 622-2643 | 15 West Dean Pk. Dr. |
| 양지식품 | 759-9331 | 1738 Lawrence Ave. E. |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 식 자

★한국일보 ★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 액자·화랑

| | | |
|---|---|---|
| 킴스(김석환) | 243-0233 | 1286 Weston Rd. |
| 선킴(김송수) | 272-0068 | 2446 Cawthra Rd. #4-4 |
| 웨이사이드(사이몬킴) | 886-1667 | 9185 Yonge St. Thornhill |
| 요한화랑(이준관) | 532-7909 | 549 Bloor St. W. |
| 픽쳐프레임(조성호·조혜숙) | 746-2120 | 32A Rexdale Blvd. |
| 호산나(이정호) | 921-8093 | 2 Bloor St. W. |

## 변호사

| | | |
|---|---|---|
| 강찬영 | 961-2417 | 410 Dundas St. E. |
| 랄프·M | 533-8539 | 627 Bloor St. W. #302 |
| Mendel Green(이민변호사) | 862-7880 | 390 BAY ST. |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의 사

(가정의사)

| | | |
|---|---|---|
| 황대연 | 961-7495 | 7 Dale Ave. Toronto |
| 최동영 | 964-0471 | 600 Sherbourne, #308 Tor. |
| 왕운린 | 968-1543 | 600 Sherbourne, #402 |
| (소아과·알러지) | | |
| 이은숙 | 781-0033 | 250 Lawrence Ave. W. #203 |
| (내과) | | |
| 김낙혜 | 924-9741 | |

## 약 국

| | |
|---|---|
| 돈밀(이이병) | 429-4117 |
| 슈퍼 X(조남오) | 368-2746 |
| 윌리(양문정) | 656-3351 |
| 킬·윈치(한일환) | 636-2781 |

## 치 과

| | | |
|---|---|---|
| 원영수 치과 | 923-3336 | 600 Sherbourne, #406 |
| 이영일 치과 | 233-9301 | 345 Wilson Ave. #202 |
| 임동순 치과 | 231-9163 | 150 Berry Rd. #24 |
| 이 억 치과 | 224-0483 | 121 Willowdale #303 |
| 최해경 치과 | 483-9515 | 586 Eglinton E. #208 |
| 윤중태 치과 | 925-2408 | 360 Bloor St. W. #307 |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태권도장

| | | |
|---|---|---|
| 박종수 | 961-7100 | 719 Yonge St. |
| 박주삼 | 535-4000 | 814A Bloor St. W. |
| 손명수 | 763-1155 | 2190D Bloor St. W. |
| 완인태권(이경태) | 759-2500 | 1865 Lawrence Ave. E. |
| (이현우) | 483-4002 | 2281 Yonge St. |
| 임송학 | 247-7577 | 1963 Weston Rd. |
| 정영수 | 652-0000 | 546A St. Clair Ave. |
| 정기태 | 922-5117 | 511 Yonge St. Tor. |
| 서정길 | 630-3095 | 676 Sheppard Ave. W. |
| 이도희 | 243-7173 | 1937 Weston Rd. Weston |

### 아파트를 구하고 계십니까?

한국일보 안내광고 가,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학 교

| | |
|---|---|
| 노스욕한글(이인용) | 789-7352 |
| 동불학교(김지현) | 757-7828 |
| 미시사가 한글(김영자) | 827-7057 |
| 샛별 한글(문관식) | 923-2007 |
| 씨앗 한글(유희자) | 960-0074 |
| 웨스톤 한글(김창열) | 536-1166 |
| 욕 한글(서병수) | 249-4246 |
| 한맘 한글(곽준구) | 444-4987 |
| Y 토요학교(김창열) | 536-1166 |
| 소웰한글학교(박송나) | 663-1178 |
| 모짜르트 음악학원(윤호섭) | 881-8230 |
| 미주장로회신학대학토론토분교(최양선) | 762-1495 |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캐나다노회(계화삼) | 233-2266 |
| 토론토한인성서신학원(박희민) | 535-6864 |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 축

# 토론토 한국일보

# 일간발행 2주년기념

북미의
25시를 지키는 파수대
토론토 한국일보
민중의 목탁으로서
교민을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KOREA TIMES · 한국일보 · Toronto

## 교민을 위한

## 교민의 은행

**외환은행장미적금 안내**

가장 높은 이자율 13.97%

| 기 간 | 계약액 | 월부금 | 금리 | 지급총액 |
|---|---|---|---|---|
| 6개월 | 500 | 81,44 | 6,07 | 506,07 |
| | 1,000 | 162,88 | 12,14 | 1,012,14 |
| 1년 | 500 | 39,68 | 10,99 | 510,99 |
| | 1,000 | 79,36 | 21,98 | 1,021,98 |
| 1년반 | 500 | 25,84 | 14,84 | 514,84 |
| | 1,000 | 51,68 | 29,68 | 1,029,68 |
| 2년 | 500 | 18,92 | 17,93 | 517,93 |
| | 1,000 | 37,84 | 35,86 | 1,035,86 |

● 500불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한 배수 입니다

**영업안내**

- □ 체킹구좌업무〈개인, 기업〉
- □ 예금업무〈Saving, Term Deposit〉
- □ 적금업무〈6개월, 1년, 1년반, 2년〉
- □ 외환송금업무〈전신, 우편송금〉
- □ 수출입〈신용장 개설, 통지, 매입〉
- □ 대출업무〈개인융자, 사업자금〉
- □ 모기이지〈주택구입, 부동산투자〉

**뱅쿠버지점 9월중에 개점**

9월에는 뱅쿠버지점을 개설하여
캐나다전역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韓国을 代表하는 世界有数의 国際的 銀行
韓國外換銀行이 全額出資하고 保証하는

#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 본점 | 불루어지점 | 뱅쿠버지점 |
|---|---|---|
| 2 FIRST CANADIAN PLACE #1140<br>P.O.BOX 402, TOR., ONT. M5X 1E3 | 629 BLOOR STREET WEST<br>TORONTO, ONTARIO M6G 1K8 | ONE BENTALL CENTER #760<br>505 BURRARD ST. VANCOUVER |
| 364-2890 | 533-8593 | 687-7322 |